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 석사 학위 논문

자연과 화해: 『살롯의 거미줄』의
생태주의 영향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 영문학과

오수현

문학석사학위논문

자연과 화해 : 『샬롯의 거미줄』의
생태주의 영향

지도교수 박 양 근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 영문 학과

오수현

오수현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3일



주	심	문학박사	윤희수 (인)
위	원	문학박사	송호림 (인)
위	원	문학박사	박양근 (인)

목 차

Abstract	ii
I . 서론.....	1
II . 다양성과 공생의 생물평등주의.....	7
III . 자연의 순수와 자아실현.....	27
IV . 자연과 인간의 소통.....	42
V . 결론.....	62
참고문헌.....	65

Nature and Reconciliation : Ecological Impact of *Charlotte's Web*

Su Heon Oh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arlotte's Web is a work of children's literature; one of three books Elwynn Brooks White wrote for children. White's three works of children's literature included *Stuart Little*, *Charlotte's Web* and *The Trumpet of the Swan*. He depicted the preciousness of life and a sense of nature for humans to communicate with. *Charlotte's Web* in the ecological literature resonates the essence of nature in literature that expands the base of ecological consciousness, reveal the inner reflection of the human on ecology. From this viewpoint, the eco-liberal discussed the value of this work to analyze the liberal attitude and background naturally.

Biospherical egalitarianism is oriented from Naess who claims of the seven characteristics of deep ecology. The logic of the alternative point is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iversity and symbiosi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Charlotte's Web*. The deep ecological scholar Plumwood suggests the concept of ecological self in the relationship. The ecological self can be understood as kind of self involved in the symbiotic relationship of the entire ecosystem. White with these eco-liberal elements in his work of nature and human communication are consistently emphasized. Animals in *Charlotte's Web*, speak to other animals. Therefore, *Charlotte's Web* can be interpreted as allegorical. White however, doesn't show simply that the animals are speaking, but also focuses on the behavior of animals, by nature giving a message to the

humans. He focuses on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creatures start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as the protagonist Fern begins with the claim of equality. Biospherical egalitarianism is recognized as the premis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Charlotte's Web*.

The body of this study of *Charlotte's Web*, when viewed from the ecological perspective, among a variety of ecological flows, are a match in deep ecology. The contents of the main subject in this study are divided into three tenets. These are biological egalitarianism, according to nature's purity and self-realization, ecological, natural and human communication, due to the principle of diversity and symbiotic eco-liberal elements shown in *Charlotte's Web*.

Charlotte's Web'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Fern claims she is equal to Wilbur while trying to save Wilbur. She argues that there is biospherical equality between Wilbur and herself. She goes to the barn every day to see Wilbur. Fern is recognized as an equal to the animals in the barn and listens to the stories of the animals. Communication between Fern and the animals is made by the organization of biospherical egalitarianism.

Next, human language in the spider's web to save Wilbur is sent by nature as a message to humans. The human beings and animals should be considered equally natural. The communication structure is consistent with the claims of liberal ecology, human and nature, communicates repeatedly across the inevitability of natural differences. Animals should be ecologically attributable to being imaginary, and not put it in the sub-rational of human.

Through his other children's literature, there is a willingness to communicate between humans and nature, as it consistently appears in *The Trumpet of the Swan*.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elements of the ecological principle of diversity and symbiosis appeared in White's *Charlotte's Web*. In addition to illuminate

how biospherical egalitarianism and self-realization play a role and to elucidate ecological liberal reflection that contained the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Charlotte's Web aims to make all the animals and humans as literary ecological works; It also aims to show humans, nature, animals, and earth demonstrate equivalent qualifications, shows we all following the principle of life.



I. 서론

엘윈 브룩스 화이트(Elwyn Brooks White)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아동을 물론 성인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작가 중의 하나였다. 화이트는 어린 시절 전원에서 동물들과 성장했던 경험 때문에 자연에 대한 감각과 성찰이 남달랐으며, 인간을 자연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생태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성, 기술진보의 실패, 전원생활의 즐거움 등을 담으면서 자연과 단순한 삶을 지지하였다.

화이트가 『샬롯의 거미줄』을 출간한 1950년대의 미국 사회는 2차 대전의 후유증과 소련과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으로 매우 불안하였다. 세계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소련과 경쟁하면서 과학기술 진보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은 다양한 사회 계층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그로 인한 사회 부조리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화이트는 1920년대부터 미국 뉴욕에서 칼럼니스트와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와 부조리 갈등을 대면하면서 현실과 반대적 가치를 추구하여 현실에 대한 위로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의 초기 시집 *The Lady is Cold*(1929), *The Fox of Peapack and Other Poems*(1928)등 일상적인 일들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그의 흥미를 반영하였다. 1939년부터 브룩클린 북부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18명의 조카들을 위해 『스튜어트리틀』(*Stuart Little*)(1945),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1952), 『트럼펫을 부는 백조』(*The Trumpet of the Swan*)(1970)와 같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저술하였으며 『샬롯의 거미줄』로 뉴베리아너상, 『스튜어트리틀』과 『트럼펫을 부는 백조』로 로라잉걸스와일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화이트가 메인에 있었던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와 그 돼지우리 속 거미로부터 착상한 『샬롯의 거미줄』은 1948년 『돼지의 죽음』(*Death of a*

Pig")이라는 에세이로 발표했다가 소설로 발전시킨 작품으로 20세기의 마지막 고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Wake 105). 겨울이면 햄이 되어 죽을 운명에 처한 돼지를 친구인 거미가 거미줄에 쓴 글씨를 이용해 구해준다는 내용인 이 작품은 충실함, 인내심, 전원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20세기의 불안한 상황을 희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샬롯의 거미줄』은 어린이 문학의 고전으로서 작품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와 국내의 다양한 연구 중 세스 레러(Seth Lerer)의 『어린이 문학의 역사』(*Children's Literature A reader's History From Aesop to Harry Potter*)에서 『샬롯의 거미줄』이 어린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세스 레러는 주인공 샬롯(Charlotte)을 창조력을 구현하는 어머니의 예술로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샬롯의 거미줄』의 연구가로 알려진 이영림은 작품 속 인물 편(Fern)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여 『샬롯의 거미줄』을 아동의 성장을 다룬 작품으로 보고 있다. 『샬롯의 거미줄』을 생태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연구는 다른 연구방식에 비하여 미흡하지만 최근에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린 오버홀트 웨이크(Lynn Overholt Wake)는 『샬롯의 거미줄』을 환경주의의 걸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이트의 친생물적 감각을 분석하고 편(Fern)을 통해 화이트가 인간 이외의 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고 역설한다(Wake 101).

최근의 대표적인 생태주의 연구로서는 강원대 김대영의 「생태학적 통합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이 비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에서의 공생 관계의 예시」를 들 수 있다. 그는 『샬롯의 거미줄』에서 공생 관계의 예시를 통해 생태학적 통합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샬롯의 거미줄』에 나타난 관계성에 비중을 두어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희망의 성취를 샬롯과 월버의 관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모든 등장인물의 역할이 통합의 과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아기 돼지 월버가 생존하는 것은 실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영역이 돌연히 출현하는

창발(emergence)과 에지 효과(edge effect)와 같은 실제적 이익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샬롯의 지적 유산들이 후손들에게 퍼져 나가는 점에서 해석과 통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사유와 유사하다고 하겠다(김대영 생태학 24). 그의 또 다른 논문 「Mind Expansion : From Anthropocentric Ecocentric-an Example of Mind Expansion in E.B.White's Charlotte's Web」은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생태 중심적 관점으로 인지적 확장을 해나가는 추이를 『샬롯의 거미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웨이크가 주장하는 화이트의 인간 이외의 종에 대한 관심과 친동물적 태도는 생태주의가 주장해온 생물평등주의 사상과 관련될 수 있다. 김대영이 공생의 개념을 에드워드 윌슨(Edward.O.Wilson)의 저서 『통섭』(Consilience)에서 빌려 온 것은 생태주의의 한 흐름인 심층 생태주의의 공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실제 『샬롯의 거미줄』은 다양한 생물들과 인간이 평등한 자세로 공존하는 생태주의적 삶이 엮여 지고 있다. 비록 『샬롯의 거미줄』에 관한 생태주의적 관점의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샬롯의 거미줄』은 적지 않은 생태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0여 년의 짧은 시간동안 인류가 이룩한 집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터전인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 왔다. 그로 인해 20세기 후반 이상 기후와 각종 재해들이 나타나자 인간이 자연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생명을 존중해야한다는 생태주의적 태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생태주의는 환경파괴만을 복원하고자 하는 환경주의 사상과는 다르다. 환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인식해야 하는 점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에 속해 있는 생물들과 동등하다고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주의 의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고 있다. 자유주의적 생태학은 공리주의적 사상과 환경 정의에 관한 롤스(Rawls)의 이론과 심층 생태주의를 포함하여 발전하였다. 심층 생태주의가 가진 신비주의적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 후의 포스트모던 생태학은 스

피노자(Spinoza)와 니체(Nietzsche)의 사상을 발전시킨 탈 구조주의 생태학과 들뢰즈(Deleuze)의 행동학과 리좀적 자연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살롯의 거미줄』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요소는 프리쇼프 카프라(Fritjof Capra)와 안네스(Arne Naess)의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의 생각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네스는 그의 논문 「표층적 생태운동과 심층적 장기적 생태운동. 요약문」("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에서 생태주의의 7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환경과 동떨어진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환경과 인간의 구분이 아닌 관계로서의 '전방위 이미지'를 선호한다. 둘째, '원칙상' 생물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원칙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다른 생물을 죽이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추구한다. 넷째, 인간이나 생명체를 착취와 피착취계급으로 구분지어 인식하는 입장 혹은 그렇게 되는 구조에 반대한다. 다섯째, 오염과 자원 고갈에 반대한다. 여섯째, 복잡성을 지향하지만 이는 뒤얽힘과는 구별된다. 일곱째, 지역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지향한다(Naess The swallow 95). 그 중에서 생물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추구한다는 점이 『살롯의 거미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네스의 심층 생태학을 더욱 심화시킨 발 플럼우드(Val Plumwood)는 '타자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인정과 존중'으로서의 생태 정의관을 강조한 학자이다. 그녀는 타자의 가치를 유기체에 내재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공생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관계-속에-있는-자아(self-in-relationship)'로서의 생태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Plumwood *Feminism* 154). 생태적 자아는 일종의 관련된 자아로 간주되어 질 수 있으며, 편과 월버, 살롯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편과 월버, 살롯은 그들 자신을 위함과 동시에 타자들을 위한 존중과 배려를 하는 등장인물들이다.

『살롯의 거미줄』은 심층생태주의가 지향하는 생물 평등주의와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아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아동들은 자연 친화적 묘사와 동물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관점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연을 억압하려는 애러블(Arable)씨와 애브리(Avery)가 물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자연과 화해하고 정화되는 장면은 플럼우드의 생태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생태주의적 의지를 아동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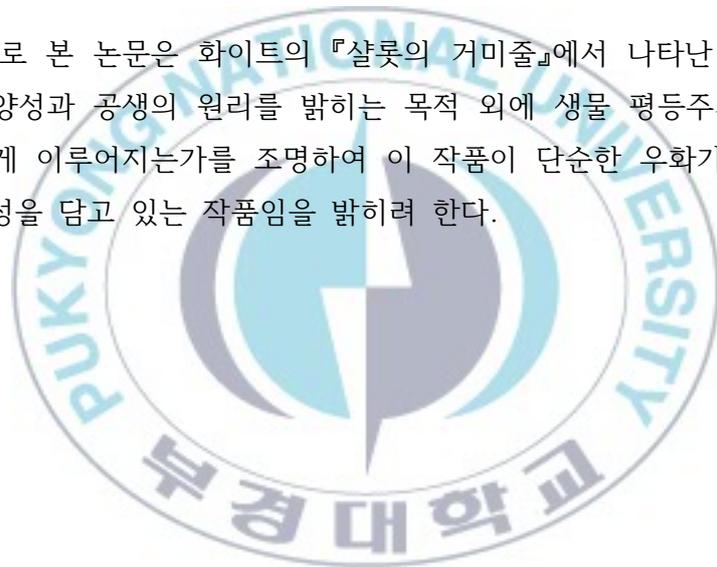
인간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욕망으로 끊임없이 상징계인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의 일부분도 읽지 못한 채 버린다. 『살롯의 거미줄』에서 쓰레기 더미의 찢어진 글자 조각들은 그러한 인간들이 읽지 못하고 버린 언어들을 비유하고 있다. 살롯이 거미줄로 인간의 언어를 보여주는 것은 상징계가 인간의 독점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서 자연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애러블씨와 살롯은 인간이 자연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연이 인간의 상징계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화이트는 자연과 인간이 소통되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작품은 자연의 본질을 문학에 끌어들이며 생태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성찰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살롯의 거미줄』의 생태주의적 요소들은 아동들에게 생태주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품 속의 편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생태주의적 태도와 자연적 배경을 분석하여 이 작품이 갖는 생태주의적 가치를 논의하며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는 생태주의적 추이를 찾고자 한다.

2장에서는 화이트가 생물평등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월버와 편미성숙함을 존중하고 살롯의 자생하는 생명성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작품 속에서 나타난 미성숙함과 자생하는 생명성이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에 의한 심층 생태주의의 생물 평등주의와 관련 있음을 다룬다.

3장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의 순수성 회복과 자아실현에 관한 생태주의적 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인간만을 위한 자아실현이 아니며 차이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샬롯의 거미줄』의 다양한 인물들과 배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을 조명하고 나아가 애러블씨와 애브리의 물세레가 가지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샬롯의 거미줄』에서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살펴 단순한 우화를 초월한 철학적 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이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일관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에서 나타난 생태주의의 요소인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밝히는 목적 외에 생물 평등주의와 자아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명하여 이 작품이 단순한 우화가 아닌 생태주의적 반성을 담고 있는 작품임을 밝히려 한다.



II. 다양성과 공생의 생물 평등주의

『살롯의 거미줄』은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추구하기 위해 생물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심층생태주의 생각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다양한 동물들이 각각 환경에 적합하게 생활하는 생태가 다른 동물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성숙하고 어린 편과 월버, 스스로 자생하는 생명력을 가진 살롯, 탐욕스런 템플턴(Templeton)등 『살롯의 거미줄』의 등장 인물들은 서로 존중받고 공존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쥐나 거미 등은 열등하고 쓸모없는 동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하찮게 취급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서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화이트의 관점은 심층 생태주의가 주장하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1990)의 저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동물의 이해관계를 인간의 이해관계보다 열등하게 보는 태도를 비판한다. 만일 우리가 동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불평등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inger 21). 이것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이해관계 안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톰 리건(Tom Regan)은 공리주의에 근거한 싱어의 도덕적 동물 평등론과는 달리 ‘내재적 가치’ 개념에 의존하여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살아 있는 존재에게 공통된 유일한 성질은 ‘한 생명의 주체(subject-of-a-life)’라는 점을 칭하고 있다. ‘한 생명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해야 할 존재이므로 그러한 존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서 대우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총체적 선의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목표보다 우선한다(Regan 243). 보다 심화된 생태철학으로서 심층 생태주의자 네스는 생물 평등주의를 "생명체의 어떠한 단일 종일지라도 다른 어떤 종들에 비해 생존 및 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더 많은 특정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Naess Ecology 166).

심층 생태주의의 생물 평등주의에 대한 주장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생물평등주의는 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된다. 즉,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적 장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과 번창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직관적으로 분명하고 매우 가치 있는 공리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층 생태학은 생물 종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또한 생물평등주의는 생물 종들 간의 '공생'을 전제로 한다. 생태적 호혜성은 생태주의에 기초하지만, 이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심층생태주의의 생태 중심적 평등 원칙은 모든 생명들의 부분들 간 종속과 계층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스는 생물 중심적 평등의 일반 원칙에 집착하지만, 현실적 실천이 어떤 죽임, 착취, 억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Naess The swallow 95, Ecology 168). 동물과 인간의 평등에 관한 편이 생각을 다루는 『살롯의 거미줄』은 심층생태주의 철학의 핵심사상인 생물 평등주의를 부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은 거대하고 개척해야 할 인간의 도전자 역할을 해왔지만 문명의 발달로 인간에게 불필요한 자연의 일부분은 파괴되어 지고 있다. 한 농장의 헛간에 같은 배에서 난 새끼들 중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난 월버는 잔인한 인간의 개발 앞에서 미약한 자연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쓸모없는 존재 월버를 향해 농장의 주인 애러블씨는 도끼를 들고 월버를 처리하러 간다. 그런 아버지 애러블씨에게 어린 딸 편은 팔에 매달려 월버를 살려 줄 것을 애원한다.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 월버의 생명을 살리고자하는 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쳐 낸다.

"죽이지 마세요, 그건 부당해요." 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러벌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드럽게 딸을 달래었습니다.

"애야, 참을 줄도 알아야지."

"참아야 한다구요? 죽고 사는 일을 두고 아빤 참으라고만 하세요."

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도끼를 잡고 아빠의 손에서 빼내려고 애씁니다.

"애야, 새끼 돼지에 대해선 아빠가 훨씬 잘 알고 있단다. 약하고 작은 놈은 내내 성가시다구. 자 그 일은 아빠에게 맡겨 두고 어서 들어가거라."

"그건 말도 안돼요. 그놈이 작게 태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빠, 저도 만약 갓난아기였을 적에 몹시 작았다면 안 기르셨겠네요?"

편은 물려서지 않습니다.

애러벌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며 타이릅니다.

"물론 안 그랬겠지, 문제가 다르니까. 약한 아기하고 형편없이 작은 돼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

"뭐가 달라요? 이런 옳지 못한 일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김경 8-9)

"Please don't kill it!" she sobbed. "It's unfair."

Mr. Arable stopped walking.

"Fern," he said gently, "you will have to learn to control yourself."

"Control myself?" yelled Fern.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you talk about controlling myself." Tears ran down her cheeks and she took hold of the ax and tried to pull it out of her father's hand.

"Fern," said Mr. Arable, "I know more about raising a litter of pigs than you do. A weakling makes trouble. Now run along!"

"But it's unfair," cried Fern. "The pig couldn't help being born small, could it? If I had been very small at birth, would you have killed me?"

Mr. Arable smiled. "Certainly not," he said, looking down at his

daughter with love. "But this is different. A little girl is one thing, a little runty pig is another."

"I see no difference," replied Fern, still hanging on to the ax.

"This is the most terrible case of injustice I ever heard of." (2)

편은 새끼 돼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외친다. 그리고 그 부당함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논리로서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 자신을 통제하는 일보다 우선된다고 말한다.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편 의 태도는 확고하며, 월버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말하고 있다. 편은 가장 끔찍한 부정의에 저항하고 그것은 동물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 생물평등주의에 대한 화이트의 생각은 계속 일관되어 나타난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월버를 구하려는 편 의 논리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성인 독자들과 어린 독자들은 다른 등장인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편만이 갖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특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작품이 전개되면서 그것은 편이 정당하기 때문에 갖는 권한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 생물 평등주의에 반하는 아버지 애러블씨의 부당성에 저항하고 정의를 외치는 편 의 호소와 그녀만의 동물과의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한 외경이 결합하여 월버가 죽어야 하는 이유의 부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화이트는 독자가 편에 설 것인지 편 의 아버지의 편에 설 것인지에 고민할 때 편 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편 의 아버지의 논리를 불리하게 만든 것이다. 독자는 어느덧 편 의 편에 서게 되고 편과 함께 동물들의 이야기를 엿듣기를 즐기게 된다. 편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권한은 편이 주장하는 평등에 대한 논리와 주장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미성숙한 존재인 편과 월버에 대한 지지는 편 의 능력과 편 의 동물과 평등하다는 주장을 함께 결합시키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살롯의 거미줄』이 생명의 정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연의 생명체가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정희는 그녀의 논문「생태주의적 비전-E.B.화이트의 『살롯의 거미줄』에

서 편이 월버를 인간과 동등한 입장으로 구원하였다고 보고 있다.

편이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월버를 구함으로써 돼지는 인간과 같은 정체성을 갖는다. 편이 월버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돼지는 가족에서 정체성과 성격을 갖는 인격체로 바뀐다. 편은 모자관계로서 월버를 인간 아기처럼 대한다. 두 장에서는 그녀와 월버의 관계는 더없이 행복한 최상의 상태로 묘사된다. 월버가 주커만의 헛간으로 떠날 때까지 아버지의 보호 하에 있는 걱정 없는 완벽한 순수함의 세상에서 전혀 힘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놀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두 장은 이 작품의 다음에 이어지는 월버의 생명의 구원 이야기와 공통점을 갖는다. 첫 두장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월버는 실제로 다른 종의 여성에 의해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편은 엄마로서 아기 돼지를 기르는 것은 그들 둘 다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화이트는 월버를 어린이 대체물로서 감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현실적 의미에서 가족인 월버는 크리스마스 파티용으로 운명이 정해진 돼지로서 키워지도록 주커만(Zuckerman)의 농장으로 옮겨진다. (이정희 2)

이와 같이 월버는 가족으로서는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편이 도움으로 살아나고 이름을 갖게 된다. 가족의 정체성과 함께 월버라는 이름의 인격체로 바뀐다. 그것은 월버와 편이 동등한 생명체라는 생물평등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편은 아직 어린 8세의 소녀이다. 이 작품에서 월버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린 나이의 등장 인물로 작품 속에서 가장 무한한 애정을 받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월버와 편은 어리지만 그 어리다는 것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임을 화이트는 나타내고자 한다. 미성숙한 월버와 편이 원만한 소녀와 훌륭한 돼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어린 시기에 이루어진 자연과의 교감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작고 미성숙함에 대한 존중은 생태주의를 다루는 아동 문학에서 첫 번째로 이뤄져야 할 태도인 것이다.

화이트의 작고 미성숙함을 존중하려는 철학은 그의 다른 두개의 아동문학 작품 중의 하나인 『스튜어트 리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 문명 도시에 사는 리틀(Little)씨 부부에게 새로 입양된 아기는 2인치도 되지 않는 작은 키와 날렵한 코와 꼬리, 수영을 가진 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리틀씨 부부는 ‘쥐’같이 생긴 아기를 기르기로 하고 ‘스튜어트’라고 이름을 정한다. 스텐어트는 작지만 모든 행동에서 당당함을 보이고 리틀씨 부부에게 사랑받는다. 월버가 작고 미성숙하게 태어나 죽을 운명에 처했던 것처럼 스텐어트 또한 사회적 약자로서 모험을 감수해야 했다. 월버와 스텐어트가 주위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 하나의 주체로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스텐어트를 용감한 모험가로 그려내는 것은 『살롯의 거미줄』에서 템플턴에 이어 화이트의 생명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작품 말미에서 생명 그 자체를 인정하고자 하는 생태주의적 의지가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축제에서 벌어지는 돼지 품평회에서 월버보다 ‘삼촌’이라는 돼지가 크기 면에서 유리하였지만 결국 월버가 특별상을 타게 된다. 그것은 살롯의 거미줄에 적힌 글자 덕분이기도 하지만 순결한 하얀 피부가 상징하는 어리고 미숙함에서 오는 순수함과 겸손함(humble)의 의미 때문이다. 유약하고 미숙하지만 아직 어린 상태에서 발현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생태주의 이해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살롯의 거미줄』에서 편이 어림과 미성숙함을 존중하는 생각은 생물 평등주의 생각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월버를 보기 위해 헛간을 찾는 편이 행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편은 거의 날마다 월버를 보러 옵니다. 헛간 한구석에 우유 짤 때 쓰는 버려진 발판을 주워 월버의 우리 옆에 자리한 양사에 놓고 조용히 앉아서 월버를 지켜 보다 돌아가곤 합니다. 양들이 금방 편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사는 거위들도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편은 조용하고 상냥하였으므로 헛간안의 모든 동물 가족들이 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Fern came almost every day to visit him. She found an old milking stool that had been discarded, and she placed the stool in the sheepfold next to Wilbur's pen. Here she sat quietly during the long afternoons thinking and listening and watching Wilbur. The sheep soon got to know her and trust her. So did the geese, who lived with the sheep. All the animals trusted her, she was so quiet and friendly. (14-15)

이처럼 편이 일버를 동등하게 생각한 생물평등주의 생각은 헛간에서 편과 동물들의 생물평등주의로 확대된다. 편은 헛간의 동물들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그 공간에서 조용히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헛간에서 편과 동물들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리고 미성숙한 편이 생물평등주의에 적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학교의 수업이 마치고 방학이 되자 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헛간으로 와서 발판에 가만히 앉아 있다 가곤 합니다. 동물들은 편을 자기들과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양들도 편의 발치에 편안히 드러눕곤 합니다.

Now that school was over, Fern visited the barn almost every day, to sit quietly on her stool. The animals treated her as an equal. The sheep lay calmly at her feet. (42)

편은 동물들과 금세 친숙해졌고 동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편은 거의 매일 일버를 찾아와서 동물들이 하는 말에 계속 조용히 집중한다. 동물들은 편을 신뢰하게 되며 편과 동물들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편이 조용히 동물들의 대화를 들으며 헛간의 동물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동물들은 편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동물들이 편을 인정하

게 되면서 동물들이 느끼는 감각과 동물들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신뢰, 믿음, 생각, 감정들을 편이 공유하게 된다. 독자는 편과 함께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대화에 끼어들게 된다. 편의 행동은 자연을 주체로서 인정하는 지극히 충실한 것이다. 조지 세션즈(George Sessions)와 빌 드발(Bill Deval)은 『심층생태학: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삶』(*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is Mattered*)(2001)에서 "생태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은 침묵과 고독을 인식하고 듣는 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더욱 신뢰하며 더욱 총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비 착취적인 과학과 기술의 관점에 입각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Bill Deval & George Sessions 8). 생태의식을 가지는 첫 번째 태도로서 침묵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드발과 세션즈의 생태주의 태도는 편의 행동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편은 비록 헛간의 동물들의 이야기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동물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조용히 듣는다.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인격적인 태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편이 동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편이 인간으로서 동물세계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격된 느낌을 준다. 동물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인간의 말을 이해하지만 인간은 인간끼리의 말을 이해하고 동물의 말은 듣지 못한다. 마치 동물이 인간보다 나은 존재이며 편은 동물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오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헛간과 그 주변의 자연의 세계를 즐기기 위한 준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편이 헛간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아지자 어머니인 애러블 부인은 친구들과 놀지 않는 편을 걱정하게 된다. 편은 헛간을 사교적 공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편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곳이라 전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107). 편은 헛간의 동물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헛간이라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인물로 인간의 이성과 영혼 면에

서 미숙한 어린이다. 편은 니체가 말한 인간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사상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는 반면 동물로부터 이를 회수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을 분리시켰다. 또한 기독교 사상은 인간에게 영혼과 자유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야수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양 견해 모두 인간에게 "동물과 자연의 관계에서 잘못된 순위 질서"를 부여했다(Nietzsche The Gay Science 115).

니체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나 자유의지로 인간이 동물보다 위에 존재하고 동물을 영혼이 없는 하찮은 존재로만 볼 수는 없다. 인간의 이성이 진화한 것과 같이 동물도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의 진화를 무시한 채 인간의 진화만을 인식하고 인간이 자연과 동물의 위에 있다고 자만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생물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같은 위치의 겸손함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샬롯이 월버를 살리기 위해 거미줄로 짜 넣은 네 개의 단어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겸손한(HUMBLE)이다.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며 월버는 생명을 구한다. 거미줄에 적힌 마지막 단어인 겸손한(HUMBLE)은 미숙한 존재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태주의적 태도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미숙한 존재에 대한 생명의 존중과 함께 스스로 자생하는 생명성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생명주의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월버는 매우 미숙한 아기 돼지로 탄생하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월버는 스스로 해내는 일이 별로 없다. 샬롯이 거미줄에 짜 넣은 단어들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샬롯이 죽음을 맞이할 때 샬롯의 알주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샬롯의 알을 농장으로 가져오는 일 이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버와는 달리 샬롯은 덩을 놓는 사냥꾼이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생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 전략을 쓴다. 계략꾼으로서 샬롯은 일버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실천가이며 일버를 구할 단어들을 모색하고 그것을 거미줄로 창조해내며 거기에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 의사 도리안 선생의 이야기처럼 자연의 생물은 본래부터 창조 의지를 가진 예술가인 것이다. 자연에서 생물의 행위와 창조물을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의 훼손과 파괴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날 작은 거미의 알주머니조차도 가장 훌륭한 걸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이 이루어내는 창조물이 갖는 생명가치의 존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난감 이냐구? 아니야. 이걸 알주머니란다. 바로 내 걸작품이지."
"걸작품이 무엇이지?"
"그건 라틴어에서 온 말로 굉장히 훌륭한 물건이란 뜻이야.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최고라는 뜻이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알?"
"알이 오백열네 개나 들어 있단다."

"Plaything? I should say not. It is my egg sac, my magnum opus."

"I don't know what a magnum opus is," said Wilbur.

"That Latin," explained Charlotte. "It means 'great work.' This egg sac is my great work--the finest thing I have ever made."

"What's inside it?" asked Wilbur. "Eggs?"

"Five hundred and fourteen of them," she replied. (144)

이와 같이 샬롯과 일버의 대화는 샬롯이 알주머니를 자신의 창조물 중 가장 최고작이라고 부를 만큼 자신의 일에 창조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알주머니를 평범하게 보지 않고 가장 훌륭한 걸작품으로 지칭하는 샬롯은 보편을 넘어선 열정적인 행동가이며 예술가이다. 자연의 산물은 그

자체가 예술품이다. 의도하지 않은 색상과 무늬형태는 본뜰 수 없는 예술적미를 가진다. 샬롯이 자신의 알이 오백열네 개나 들어 있다고 답하는 것은 샬롯이 알 주머니의 알들을 집중해서 하나부터 오백열네 개까지 세어 나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샬롯의 행위는 알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샬롯의 행위를 통해 화이트는 생명에 대한 가치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전달하고 있다. 생태주의적 결작, 예술적인 생명체로서 알주머니는 하나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불러오는 것을 보여준다. 샬롯은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영속성을 알려주는 자연의 인물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이치와 순리는 생명을 존중하기에 인간의 예의만큼이나 숭고한 것임을 샬롯의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샬롯이 월버와 처음 만나 친구가 되는 첫인사에서도 보여진다.

"경례!"
월버가 벌떡 일어서서 외칩니다.
"경…… 뭐라구?"
"경례!"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친구,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제발, 어디 있는지 말 좀 해요. 그리고 경례가 무엇인가요?"
월버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인사야, 내가 '경례'라고 하는 것은 '안녕?'대신 특별히 정한 인사말이야. 실은 좀 안 어울릴 때도 많지만.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출입구 구석 위를 올려다보렴. 여기 있잖아? 보여? 내가 손을 흔들고 있지!"

"Salutations!" said the voice.

Wilbur jumped to his feet. "Salu-what?" he cried.

"Salutations!" repeated the voice.

"What are they, and where are you?" screamed Wilbur. "Please, please, tell me where you are. And what are salutations?"

"Salutations are greetings," said the voice. "When I say 'salutations,' it's just my fancy way of saying hello or good morning. Actually, it's silly expression, and I am surprised that I used it at all. As for my whereabouts, that's easy. Look up here in the corner of the doorway! Here I am. Look, I'm waving!"(35)

샬루테이션(salutation)이라는 말은 모자를 들고 정중히 인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샬롯은 처음 만난 일버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면서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장면을 보여준다. 샬롯의 일관된 예의를 갖춘 대화의 자세는 자연이 인간보다 낮은 수준에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오히려 샬롯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교양을 갖추고 지혜로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헛간에서 편이 샬롯의 일곱 마리의 새끼 거위의 탄생을 알리는 축하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편의 어머니, 애러블 부인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자연의 이치가 인간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설명한다. 샬롯이 구사하는 언어의 예의바름은 자연의 현상들이 순리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간이 자연보다 더 나을 바가 없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주커만씨에게 속임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 내가 벌레를 속일 수 있다면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거야. 사람이라고 해서 벌레들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으니까."

"The way to save Wilbur's life is to play a trick on Zuckerman. If I can fool a bug," thought Charlotte, "I can surely fool a man. People are not as smart as bugs." (67)

샬롯은 곤충을 속이는 것과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샬롯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도 한 종류의 동물이라는 입장이다. 사람이 그리 똑똑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을 인간과 동등하게 보고 자연의 순리를 가장 똑똑한 이치로 보는 샬롯의 생각은 인간의 자만을 지적하고 인간과 자연이 동등하다는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샬롯의 거미줄』에는 오감에 호소하는 감각들이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헛간 주변의 자연 배경은 눈에 보이듯이 그려지고 동물들의 소리는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헛간의 냄새가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손으로 만져질 듯한 촉감적인 표현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표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읽는 이의 감각을 깨우고자 하는 화이트의 의도이다. 아동 독자를 위해 자연에서 무감각해진 독자의 감각기관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의 생태주의적 의도는 헛간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묘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풀숲은 촉촉이 젖어 있고 땅에서는 봄내음이 물씬 풍겨 왔습니다.

주커만 농장의 헛간은 무척 큰 곳으로 지은 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마른 풀과 거름 냄새가 났으며 지친 말들의 땀 냄새와 묵묵히 잘 견디는 암소들의 달콤한 숨결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헛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나쁜 일이라고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화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곡식과 말에 다는 장식, 수레바퀴 축에 치는 기름, 고무장화, 새 밧줄, 이런 것들의 냄새도 풍깁니다. 고양이가 생선뼈를 먹을 때는 온 헛간이 비릿한 생선 냄새로 가득하지만 역시 마른 풀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헛간에는 마른 풀이 키를 넘을 만큼 높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암소와 말과 양들 앞에는 언제나 먹이인 풀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The grass was wet and the earth smelled of springtime.(1)

The barn was very large. It was very old. It smelled of hay and it smelled of manure. It smelled of the perspiration of tired horses and the wonderful sweet breath of patient cows. It often had a

sort of peaceful smell -- as though nothing bad could happen ever again in the world. It smelled of grain and of harness dressing and of axle grease and of rubber boots and of new rope. And whenever the cat was given a fish-head to eat, the barn would smell of fish. But mostly it smelled of hay, for there was always hay in the great loft up overhead. And there was always hay being pitched down to the cows and the horses and the sheep. (13)

헛간에서는 무엇보다 풀냄새가 가장 많다. 풀은 봄을 상징하고 풀냄새는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사실적인 표현이 실제로 감각기관에 전달 되도록 표현하여 독자가 자연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더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열어 놓고 느낄 수 있어야 하나의 생명체라 할 수 있다.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은 기계와 같으며 그러한 인간은 생명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때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각 동물들의 습성에 맞는 사실적인 표현이 작품의 실감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는 자연과 동물의 생태에 대한 관찰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예로 쥐 템플턴의 습성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바로 이 때 템플턴의 코가 윌버의 여물통 밑에 있는 그의 숨겨진 집에서 뽀족히 올라 옵니다. 템플턴은 편을 힐끗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벽 쪽에 바짝 붙어 거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At this point, Templeton showed his nose from his hiding place under Wilbur's trough. He glanced at Fern, then crept cautiously toward the goose, keeping close to the wall. (45)

이와 같이 사실적인 동물의 생태적 표현은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템플턴이 쓰레기장에서 돌아온 자정 무렵에도 샬롯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76)라는 문장을 통해 템플턴이 야행성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물건을 나르는 사실적인 템플턴의 행위묘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쥐의 습성을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과 관련짓고 있다. 거위의 썩은 알을 나르고 월버를 구하기 위한 글자들, 샬롯의 알을 나르는 일들은 단순한 쥐의 생태적인 모습이 다른 인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그와 같은 동물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물의 성격과 행동의 묘사가 각 동물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그 차이는 관계를 가진 개별적인 것이고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샬롯의 거미줄』의 9장에서 편은 가장 흥미로운 대화와 이상한 사건을 목격한다. 샬롯은 늦은 오후 거미줄을 짜는 것을 좋아한다. 편 또한 거미줄을 짜는 샬롯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월버가 샬롯의 다리에 털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궁금해 하자 샬롯은 다리에 털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월버에게 자신의 다리와 관절에 대해 “고관절, 전절, 퇴절, 기관부, 경절, 척절, 부절(the coxa, the trochanter, the femur, the patella, the tibia, the metatarsus, the tarsus)”라고 소개한다(55). 샬롯은 자신의 다리와 관절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면서 동물의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월버는 샬롯의 다리와 자기의 다리를 비교하며 낙심하고 샬롯은 “너와 나는 다르게 생활하게 되어 있어”라고 설명한다(56). 동물의 다른 구조는 각 생명체가 환경에 적합하게 타고 난다는 것을 월버와 샬롯의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월버의 부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월버는 샬롯이 거미줄을 짜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 그의 꼬리에 끈을 묶고 거미줄을 엮어 보려고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월버는 땅에 떨어지는 아픔과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 샬롯은 월버를 위로하며 월버가 거미줄을 엮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돼지에게는 방적 돌기가 없다는 것과 돼지와 거미의 생활방식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월버는 자신이 방적돌기(spinnerets)가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 하지만, 돼지와 거미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는다.

전문적인 해부학적인 용어는 생명체간의 차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차이가 자연스런 현상임을 전하고 있다. 월버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작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기 열등감을 빠져 나올 수 없었다. 샬롯이 설명한 생명체의 차이는 미성숙한 월버를 존중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그러한 열등감에서 월버를 확실히 벗어나게 하는 장치가 샬롯의 거미줄의 텍스트(text)이기도 하다. 샬롯이 월버에게 말한 동물들간의 차이에 대한 생각은 차이를 인정하는 생태주의 논의와도 관련시킬 수 있다.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역량이 증대되는 원인이나 조건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초월적 권력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개체의 역량이 좌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리좀적 자연주의는 이질성의 접속을 통해 복수성과 공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존재자의 존재 역량을 리좀 조직을 통한 저항으로 리좀 조직에서의 접속은 이질적인 벡터들의 결합을 통합한 '집단적 단수화'과정이다(Deleuze, G & F. Guattari 7).

이와 같이 이질적 접속은 저항의 새로운 계기를 창조할 수 있으며 『샬롯의 거미줄』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월버의 존재를 살리게 한다. 템플턴은 쓰레기 더미에서 글자를 나르고, 샬롯은 거미줄로 글자를 만들며, 동물들의 회의에서 글자를 수집하기 위한 생각을 모색하고, 늙은 양은 글자 조각들을 수집하도록 템플턴을 설득하고 축제에서 월버가 해야 할 일들을 오랜 경험으로 예측한다. 헛간의 다양한 동물들의 속성이 결합하여 월버를 살리는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이질성의 접속을 통해 복수성과 공생이 이루어지는 리좀적 자연주의를 보여준다. 자연의 모든 양태는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각각의 생명체 양태의 차이가 실체를 보여준다. 자연은 개별 생명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개별 생명체가 존재하는 총체적

인 장이다. 더 나아가 각 개별 생명체의 차이는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생태주의 논의와 관련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동물이 주어질 때, 이 동물은 무한한 세계 속에서 어떤 것에 무관한지, 어떤 것에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것들이 그것의 영양물들인지, 어떤 것들이 그것에 독이 되는지, 그것은 그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취하는 과정에서의 관계들과 능력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점은 그 대칭점을 갖는다: 식물과 비, 거미와 파리, 따라서 한 동물, 한 사물은 그것이 세계와 맺는 관계들과 분리될 수 없다(Deleuze Practical 186).

이 문장에서 들뢰즈는 각 개체들의 차이가 대칭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하고 그 차이는 서로를 구분하는 차이가 아니라 서로 관계 짓기 위한 차이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화이트는 월버의 여물통이 샬롯의 거미줄에 가까이 있기에 샬롯이 파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월버는 가축이기에 헛간을 떠날 수 없지만 템플턴은 헛간을 떠나 쓰레기 더미에서 글자 조각을 주워 올 수 있다. 월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템플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버가 먹이를 템플턴과 공유하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들뢰즈가 말하는 생명체의 대칭점은 『샬롯의 거미줄』에서도 각 생명체의 차이가 서로 필요한 부분이 되는 장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월버와 샬롯 뿐만 아니라 『샬롯의 거미줄』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은 생태적 습성의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헛간의 동물들의 차이가 차이 그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생명체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관계에 의해 모든 생명체의 존재가 유지된다는 생태주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의 부정을 시도하고 있다. 예로서 쥐에 대해 나쁘게 보는 선입견이 많지만 템플턴의 습성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생명의 중요성이 인간의 선입견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템플턴의 야비한 습성이 유익함에 쓰이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축제에서 월버가 특별상을 타게 되어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 박수를 보낸다. 요란한 박수 소리에 순진한 월버는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시상대에서는 죽은 돼지에게는 메달을 줄 수 없다고 공포하고, 주커만(Zuckerman) 씨와 애러블씨는 이에 긴장하며 월버를 깨우려 한다. 그 상황에서 템플턴이 짚을 헤치고 머리를 내밀어 보니 월버의 꼬리가 바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템플턴은 이를 드러내며 씩 웃고 "이런 건 내가 주로 하는 일이지(I'll tend to this)."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월버의 꼬리를 힘껏 깨문다. 월버는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번쩍 들고 벌떡 일어선다(159). 템플턴은 월버의 꼬리를 깨물고 아프게 하여 월버를 깨우게 하였다. 꼬리를 깨무는 행위 그 자체는 나쁘지만 결과적으로 월버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또한 템플턴은 월버를 돕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습성에 맞는 ("tend to") 꼭 깨무는 즐거움을 잊지 않고 월버를 구한 것이다. 템플턴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동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각자가 자신의 습성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인간이나 자연은 본연의 습성 생태를 지키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명이 될 수 있다. 샬롯은 거미줄을 짜면서 월버를 구해주고 템플턴은 자신의 식욕과 탐욕으로 나르는 행위를 하면서 월버를 구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화이트는 자신의 습성과 생태에 맞게 사는 것이 다른 이를 돕게 하는 일과 다른 이와 조화롭게 사는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생태 주의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주커만씨와 애러블씨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좋은 햄을 먹기 위해 월버를 기르고 잡는 계획을 하고, 동물들은 친구 월버를 살려내는 계획을 한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간의 계약과 속임수의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인간이 의식주를 위해 가축을 도살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이 아닌 야생의 거미나 쥐가 돼지 월버를 살려내는데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의 설정은 인위적인 힘과 자연의 힘의 대결 구도를 나타내기

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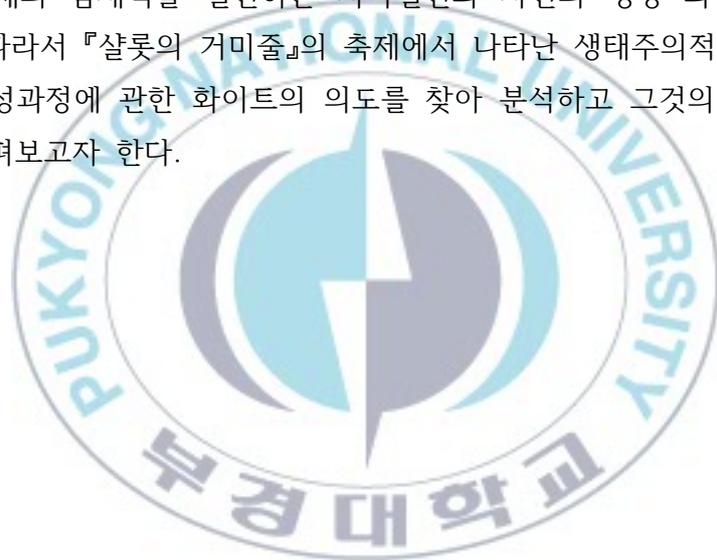
월버는 쓸모 없는 가축에서 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뒤 이름을 가지고 인격체가 되었다. 그러나 월버는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죽어서 햄이 되어야 하는 인간을 위한 고기로만 취급당한다. 하지만 샬롯의 메시지를 통해서 월버는 특별한 돼지가 된다.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에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믿어지면서 월버는 베이컨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의 존재가 된다. 샬롯이 글자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월버는 생명을 가졌지만 인간에게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베이컨을 위한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이 돼지 한 마리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이 신성한 메시지를 갖게 되면서 감히 도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샬롯은 거미줄에 적힌 글자들 “SOME, TERRIFIC, RADIANT, HUMBLE” 통해 자연이 인간과 함께 한 생명의 주체(a subject of a life)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월버는 인간에 의해 멸망할 운명에 처한 연약한 자연의 모습과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자연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월버를 살리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위해 샬롯은 농장의 동물들 모두를 소집한다(86). 농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의논해서 월버를 구하는데 협력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함께 의논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해야 하고 자연과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나타낸다. 동물들의 회의에서 높은 양의 지혜와 샬롯의 리더십, 수행능력, 그리고 실천력과 템플턴의 기민성, 순발력이 합쳐져서 월버의 생명을 구하는 작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자연, 생태라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의논해서 지켜나가야 할 문제이다. 『샬롯의 거미줄』은 누구 하나의 의견으로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생태주의 원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버는 동물들에게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주커만씨와 함께 공생한다. 그는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인간과 함께 농장의 동물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을 암시한다. 생태주의는 인간과 동물들, 자연과의 화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샬

롯의 거미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생태주의적 공생의 원리는 동물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살롯의 거미줄』에서 각 개별동물들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게 된다, 그리고 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습성에 맞는 행동으로 협동하는 모습을 통해 공생과 공존의 생태주의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편과 살롯이 월버를 살리는 행위를 통해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은 편과 월버와 다른 동물들 간의 차이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와 같은 편과 월버, 월버와 살롯간의 차이의 평등성의 인정은 생태주의적 견해에서 생명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아실현과 자연의 생성 과정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살롯의 거미줄』의 축제에서 나타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과 자연의 생성과정에 관한 화이트의 의도를 찾아 분석하고 그것의 생태주의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연의 순수와 자아실현

『샬롯의 거미줄』의 축제의 장은 편과 등장인물들이 공생을 통해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을 이루는 무대이다. 월버의 생명이 좌우되는 축제를 통해서 편과 애브리, 애러블씨와 주커만씨, 애러블부인과 주커만 부인, 템플턴, 샬롯과 월버는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찾는 것을 보여준다. 등장인물 모두가 찾는 것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공중회전차를 타면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반면 어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찾으며 사물에 의미를 둔다. 템플턴은 맛있는 음식을 찾고 월버와 샬롯은 품평회에서 상을 타기 위해 준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제는 생태 철학적 윤리로서 생물 평등주의와 자연과의 일체성에 기초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총체적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란 심층생태주의의 두 가지 핵심 규범중의 하나로 생물평등주의와 함께 중요한 규범이다.

네스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에 대해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나의 양태이며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자유는 각 생명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아실현은 나와 상호 관련된 타자들의 자아실현에 의해 고양된다고 설명한다(Naess Self realization 236). 생물 중심적 평등과 더불어 '자아실현'은 자아가 가능한 한 넓은 세계와 일체화(identification)되는 과정이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고 번성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소중한 가치이며 원리이다. 생태계의 다양성은 "생존 가능성, 새로운 생활양식의 기회,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고양"시키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즉, '너 아니면 나'라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고 살게 하는 것"이라는 공생의 논리가 더 강력한 생태계의 원칙이다(Naess The swallow 95). 즉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개별적 생명체의 잠재력의 실현을 인정함과 동시에 관계된 생명체간의 잠재

력의 실현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반대하면서 인간의 도살적 행위로부터 인간 자신의 인간성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동시에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견해 때문이다. 자연의 생명체의 자아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해야만 자연과 인간의 공생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심층 생태주의는 복잡한 또는 총체적인 관계망 속에서의 다양성과 공생이라는 개념은 “환경-속의-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거부한다. “관련적 총체적 장”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주체/객체, 인간/자연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개념은 자연과의 일체화 과정으로서 자아실현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즉, 유기체들 간의 공생 또는 공존은 그 유기체와 관계망 전체간의 자아실현 관계이다(최병두 182). 헛간에서 어린 편이 동물들을 동등하게 친구로 생각하고 샬롯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감화를 받는 모습은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편이 월버를 데리고 시냇가를 거닐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한 생명체로서 잠재력을 키워가고 실현하는 모습 또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편은 축제를 통해서 좀 더 넓고 높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며 남자 친구 헨리를 만나 또 다른 관계성 속에서 자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편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멀리까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아동기에서 발전하여 또 다른 관계를 찾아 자아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편이 축제를 통해 또 다른 자아실현의 변화를 가지는 것에 대해 편이 아버지 애러블씨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괜찮을까요?"

못내 걱정스러워서 묻는 애러블 부인의 묻는 말에 애러블씨가 대답합니다.

"언젠가는 저 애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소. 내 생각엔 이런 박람회장 같은 곳이야말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변화가 시작되기 좋은 곳인

것 같소"

"Do you really think it's all right?" she asked.

"Well, they've got to grow up some time," said Mr. Arable. "And a fair is a good place to start, I guess." (133)

이러한 아버지 애러블씨의 말에서 암시되어진 것처럼 축제에서 편은 갑작스런 변화를 보인다. 편이 어른의 손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보다 넓은 세계 "품평회(fair)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작품 초반의 편이 월버를 구하기 위해 울부짖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월버가 상을 탈 수 있을지 불안과 걱정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편은 헨리를 찾아 돌연히 사라진다. 월버가 상을 타는 순간에도 편은 멀리서 헨리를 발견하고 찾아 가는 것은 편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남자,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림은 그녀의 논문 「아동문학과 어린이의 성장 : E. B. White의 *Charlotte's Web* 연구」에서 축제에서 편이 보여주는 행위를 성장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품평회가 끝났지만 편이 기억 속에서 공중 회전차는 여전히 헨리와 함께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러할 것이다. 편이 그토록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은 헨리와 둘이 있는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공중회전차의 꼭대기에 헨리와 함께 앉아 차를 흔들면서 머나먼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인 것이다. 공중 회전차에서 편과 헨리가 보는 광경은 그 자체가 성장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영림 49).

편은 공중회전차를 타고 싶어 하며 그것은 인간이 한 성의 특징을 발현하는 것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런 과정이다. 그러므로 편이 동물에 대해 그 전과 달리 관심을 덜 두고 있는 것은 편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샬롯의 거미줄』의 10장에서 편과 애브리가 줄 그네 타는 광경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에서도 편이 성장을 찾아 볼 수 있다. 루시엔 어거스타(Lucien L Agosta)는 편이 오빠 애브리와 그네를 타는 것을 아동기에서 보여 지는 속성의 상징으로 본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다시 되돌아 오는 과정은 가정(Home)이라는 단단한 지지기반(Support)에 묶여 있는 아동기의 속성을 나타낸다. 아동기에 걸쳐 어린이들은 이런 오르고 내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며 아동기 자체는 줄 그네 타기에 비유될 수 있다(Agosta 94). 그네 타기는 편이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넓은 세계와 만나는 과정에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과정을 밟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그네 타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공중회전열차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편이 동물을 사랑하는 아동에서 발전하여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의 한 면을 보여준다. 월버를 끄찍이 돌보았던 편이 월버의 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은 경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다른 관계를 찾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월버를 죽여서 맛있는 햄으로 만들려고 했던 애러블씨와 주커만씨,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애브리는 월버가 상을 타는지에 대해 관심의 촉각을 세우고 지켜본다. 이처럼 편이 축제에서 월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 경쟁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상을 타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월버에게도 축제의 장은 한바탕의 소동이자 공생을 통한 성장의 발판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편과 함께 월버는 순수성을 상징한다. 순수하고 순진한 월버는 축제에서 칭찬과 박수 소리에 견디질 못하고 쓰러진다. 샬롯의 거미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버는 자만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월버와 편은 인간과 동물이 대적하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순수성과 순진성을 지니고 자신의 생명에 충실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을 보여 주고 있다. 월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헛간의 친구들의 노력에 대한 답으로 샬롯의 거미줄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키도록 노

력하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작고 보잘 것 없었던 일버의 변화에 대해 애러블씨와 그의 가족들은 감화를 받게 된다. 그리고 특히 애러블씨와 그의 아들 애브리는 일버를 통해 감화를 받게 되어 일버를 살려 두기로 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관계로부터 화해로 승화되기 위해 애러블씨와 애브리는 물세례라는 정화의식을 치르게 된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물세례는 일버와 애브리와 애러블씨에게 일어난다. 먼저 축제에 가기 전 일버는 애러블씨로부터 좋은 햄을 기대하는 말을 듣고 순간 쓰러진다. 그런 일버를 깨우기 위해 러비는 일버에게 물을 쏟는다. 그리고 일버는 찬물에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난다. 물세례를 받고 곧 일어난 후 일버는 쓰러지기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축제를 향하는 트럭에 실리는 실랑이에서 힘껏 반항하며 나약한 모습을 벗어나 힘찬 모습을 보인다.

물세례는 다른 자아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의 생태학은 생명 자체 속에 수반되는 역설의 논리를 함의하고 있다. 물속에는 약함과 강함의 상반 논리가 함께 들어 있으며 물의 생태학은 물의 순환과정과 깊은 관계망을 가진다. 물의 생태학 속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숨 쉬고 있다(공명수 30). 물의 의미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 속에 의미 있게 차지하고 있으며 물의 문학적 심상은 물의 원형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물은 정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 종교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물은 기독교의 세례나 영세, 불교의 관욕의 절차에서도 등장한다. 물이 지닌 청정한 정화력이 종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되고 그것은 문학적 심상 안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축제에서 샬롯의 거미줄로 적힌 글자 덕분에 일버가 특별상을 타게 된다. 일버에게 메달을 거는 시상대에서 애러블씨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일버가 박수소리에 놀라 쓰러지고 러비가 물을 가져와 일버에게 쏟는다는 것이 하필 애러블씨와 애브리에게 쏟아 붓게 된다. 군중들 틈에서 일버가 상을 받는 순간에 애러블씨와 애브리는 마치 강의 범람과 같이 물을 뒤집어썼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유독 애브리와 애러블

씨만 물세례를 받았을까? 두 사람이 물세례가 필요했던 까닭은 축제로 떠나기 직전 애러블씨가 윌버를 보면서 한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애러블씨가 윌버를 천천히 살펴보고 나서 말합니다.

"그것 참! 놀라운 돼지로군! 그 조그맣고 보잘것없던 돼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호머, 때가 돼서 저 놈을 잡으면 훌륭한 햄과 베이컨을 많이 장만할 수 있겠군."

Mr. Arable studied Wilbur carefully. "Yes, he's a wonderful pig," he said. "It's hard to believe that he was the runt of the litter. You'll get some extra good ham and bacon, Homer, when it comes time to kill that pig." (126)

애러블씨와 애브리는 윌버와 샬롯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의 주인공들이다. 편의 아버지 애러블씨는 동물을 억압하는 인물로서 작품 처음부터 끊임없이 윌버를 죽이고자 시도한다. 그는 축제 직전까지도 윌버를 도살해서 좋은 햄을 구할 것을 기대한다.

애러블씨와 함께 자연의 생명체에 대해 약탈하고 공격적인 애브리는 샬롯을 약탈하려고 하였다. 윌버와 샬롯의 최대 적대자이며 위험한 인물이 애러블씨와 애브리인 것이다. 두 사람은 기절할 윌버를 깨우기 위해 뿌린 물세례를 대신 받았다. 그것은 윌버와 샬롯에게 행한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새롭게 탄생함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많은 이들 앞에서 물세례를 받고 새롭게 탄생하면서 자연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갖는다. 결국 애러블씨는 더 이상 윌버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기로 한다. 따라서 애러블씨와 애브리의 물세례는 윌버와 샬롯을 죽이려고 한 음모의 허물을 찢고 윌버를 살려두기로 하는 절차인 것이다. 윌버가 단지 상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애러블씨와 애브리가 윌버의 죽음의 공모를 포기하고 새롭게 탄생하면서 윌버 또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갈취하던 것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연의 생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태주의

적 공생의 의미이다. 물세레는 율버와 샬롯의 생명을 위협했던 애러블씨와 애브리가 상징하는 인간 집단과 동물 집단 간의 화해를 의미한다.

축제는 『샬롯의 거미줄』의 등장 인물들이 품평회의 경쟁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의 장을 나타내고 있다. 율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샬롯의 거미줄의 글자들에 따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축제를 통해서 편은 헨리를 만나 보다 높은 곳을 보게 되고 템플턴은 최고의 식사를 즐기고 샬롯은 자신의 가장 걸작품인 알을 낳고 죽게 되는 것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축제는 한동안 마음껏 벌어지다가 끝나면 황량하게 변한다. 이에 반해 『샬롯의 거미줄』에서 자연의 축제는 새들의 축제로 시작해서 또 다른 계절로 이어지고 순환되고 있다.

초여름날은 새들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들에서, 집 주변에서, 헛간에서, 숲에서, 늪에서 곳곳에서 새들은 사랑과 노래와 보금자리를 펼치고 알을 낳지요. 숲 근처에서는(보스톤에서 날아온) 목이 하얀 참새들이 "삐뽀, 삐뽀, 삐뽀!"하고 외쳐댁니다.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딱새들이 꼬리를 까딱거리며 "피피, 피피!"하고 재잘거립니다. 참새들은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지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이 순간! 영원하여라!"

헛간에 들어가면 제비들이 둥지에서 내려다보며 "지지, 지지!"하고 꾸짖어댁니다.

Early summer days are a jubilee time for birds. In the fields, around the house, in the barn, in the woods, in the swamp--everywhere love and songs and nests and eggs. From the edge of the woods, the white-throated sparrow(which must come

all the way from Boston) calls, "Oh, Peabody, Peabody, Peabody!"
On an apple bough, the phoebe teeters and wags its tail and says,
"Phoebe, phoe-bee!" The song sparrow, who knows how brief and
lovely life is, says, "Sweet, sweet, sweet interlude; sweet, sweet,
sweet interlude." If you enter the barn, the swallows swoop down
from their nests and scold. "Cheeky, cheeky!" they say. (43)

초여름의 싱싱함과 생명에 대한 묘사가 새들의 축제처럼 새들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고 그들의 지저귀조차도 변별하여 표현하여 생명현상을 세밀하게 보고 있다. 자연과 식물, 새들의 생태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이 작품에서 독자와 다양한 생물들의 만남을 유도하고 있다. 독자로 하여금 자연을 떠올리게 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유도한다. 인간의 축제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결국 남은 쓰레기와 황량한 벌판으로 마무리 되는 것에 비해 자연의 축제는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자연은 각 생명체가 조화롭게 생태적 자아를 발현하고 실현하도록 스스로 생성하고 변화한다.

농장의 사계는 항상 순환하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고 황량하고 쓸쓸하기 보다는 각 계절마다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에 반해 샬롯이 죽은 축제의 빈 자리는 쓸쓸한 축제의 끝의 허망함을 나타내고 있다.

샬롯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공중회전 관람차가 해체되고, 경주마들이 차에 실리고 곡예사들이 물건을 챙겨 차에 올라 떠날 때 샬롯은 죽었습니다. 박람회장은 어느새 텅 비어 버리고 축사며 건물들도 헹하니 비었고 뜰에는 빈병이며 쓰레기만 나뒹굴었습니다. 박람회를 구경 왔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잿빛 거미 한 마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샬롯이 죽었을 때 옆에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She never moved again. Next day, as the Ferris wheel was being taken apart and the race horses were being loaded into vans and

the entertainers were packing up their belongings and driving away in their trailers, Charlotte died. The Fair Grounds were soon deserted. The sheds and buildings were empty and forlorn. The infield was littered with bottles and trash. Nobody, of the hundreds of people that has visited the Fair, knew that a grey spider had play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all. No one was with her when she died. (171)

살롯은 축제가 끝나자 죽고 그 축제의 자리는 황량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인간의 축제는 이렇듯 열릴 때는 신나지만 곧 끝나게 되고 황량하고 쓸쓸함을 필연으로 한다. 작품의 전반적인 따뜻한 분위기와는 달리 살롯의 죽음은 가장 슬프고 냉정한 부분이다. 월버의 목숨을 구한 가장 큰 역할을 한 살롯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죽는다. 인생에서 성장기는 축제를 통해서 비유되고 그리고 노년의 죽음은 살롯의 죽음을 통해서 비유되어진다. 이 소설은 탄생, 성장, 죽음의 과정을 다른 인물의 삶을 연결해서 전반적인 인생을 다루고 있다. 살롯은 죽지만 그녀의 알을 낳고, 알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를 이어나간다.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끊임 없는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다. 살롯의 죽음을 통해 모든 생물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잊혀지고 죽는다는 것은 쓸쓸한 결과물인 것이며 그런 죽음을 모든 생명체는 맞이하게 된다.

『살롯의 거미줄』에서 나타난 쓸모없음, 유용함, 죽음과 생명의 연속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새끼 거위의 탄생과 대비되어 죽은 알의 운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알은 7마리의 새끼 거위와 대비되어 진다. 어미 거위가 낳은 알들이 모두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있는 알은 템플턴의 탐욕을 일으킨다. 애브리는 월버의 여물통 주변에 있는 살롯을 발견하고 살롯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애브리가 넘어지면서 월버의 여물통 밑에 있는 템플턴의 썩은 알을 깨뜨리게 된다. 상한 알에서 나

는 독한 냄새를 참지 못하는 애브리는 도망을 간다. 썩은 알로 샬롯은 살게 된다는 것은 죽은 알조차도 생명현상에서 쓸모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상한 알은 결국 깨진다. 죽은 알(dud)의 부패와 상함, 그리고 결국 터짐은 위기와 갈등이 결국 터트려져야 해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월버와 월버의 돼지우리에 평화를 가져온 썩고 냄새나는 알도 효율적이고 생명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자연에는 무언가 썩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썩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결국 썩어서 순환되어진다.

죽은 생명체의 파열음이 살아 있는 생명체의 구원의 소리가 되고 이전까지 위기감을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죽은 생명체의 파열이 생명을 구하고 한편에서 편과 애브리가 냄새 때문에 고통 받고 도망가는 것은 죽은 생명체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며 죽어 있는 것도 살아있다.

월버는 똥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지만 똥의 부드러움이 좋아서 똥거름에 낚기를 좋아한다. 더러운 냄새나는 똥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좋은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서 샬롯은 월버에게 자장가로 똥에 관한 노래를 불러준다. 월버의 똥에 대한 애착은 자연 생태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에게는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똥이 월버에게는 안락한 안식처에 비유되고 있다. 마치 그러한 경험을 가졌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그 안락함을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생태와 다른 동물의 생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생태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월버는 헛간을 가장 좋은 곳으로 보고, 일상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나타낸다. 월버가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연스런 생활을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서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월버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

화이트의 농장 세계에 대한 사랑은 윌버와 샬롯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나는 여기 이 헛간이 좋아.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좋아." "그럴 거야, 우리들 모두도 그러니까"(62). 화이트는 윌버와 마찬가지로 독자에게도 자연에 대한 사랑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화이트의 친구, 자연, 사랑, 자연의 모습, 소리, 냄새 등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라는 작가적 관점은 생태주의적 관점과 일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해 실제로 생태주의적 삶을 사랑한 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자연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일상을 사는 독자들에게 자연의 순수를 느끼도록 권유하는 화이트의 호소는 샬롯의 말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있다.

가을날은 점점 짧아지고 추워질 거야.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겨울눈도 내릴테지. 너는 살아 남아서 얼어 붙은 아름다운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야. 주커만씨에게는 네가 굉장한 존재이니 절대로 널 해치지 않을 거야. 겨울이 지나 낮이 길어지면서 목장의 연못에 언 얼음이 녹겠지. 참새들이 다시 나와 지저귀며 노래하고,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면 훈풍이 불어 올 테지. 이런 온갖 정경과 소리와 냄새를 너는 즐길 수가 있을 거야. 윌버.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이 소중한 나날들

These autumn days will shorten and grow cold. The leaves will shake loose from the trees and fall. Christmas will come, then the snows of winter. You will live to enjoy the beauty of the frozen world, for you mean a great deal to Zuckerman and he will not harm you, ever. Winter will pass, the days will lengthen, the ice will melt in the pasture pond. Then song sparrow will return and sing, the frogs will awake, the warm wind will blow again. All these sights and sounds and smells will be yours to enjoy, Wilbur--this lovely world, these precious days. (163~ 164)

살롯은 이와 같이 아직 태어나서 봄에서 가을을 겪고 있는 월버에게 앞으로 다가올 늦가을과 겨울의 모습을 들려주며 자연 속에서 한 생명체로서 소중한 자연을 그 자체로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살롯은 한 생명체로서 자연 현상에 관심 갖고 따르고 그에 삶이 영향 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행복하다고 간주한다. 봄이 되어 소생하는 자연의 소소한 것에 대한 호명은 독자가 자연에게로 조금씩 접근하기를 원하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시야가 좁혀지면서 그 사물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와 보이는 것처럼 자연의 세계가 인간의 시야에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자연의 이름 모를 생소한 풀과 나무와 곤충의 이름을 알게 되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친숙하게 된 자연이 독자의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화이트는 원하고 있다. 그러기에 작은 자연 현상조차도 알뜰하게 묘사한다. 자연 속의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호명은 살롯이 회합을 할 때 헛간의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마치 출석을 부르듯 호명하는 것과 같이 그 존재감을 강조한다.

또한 월버는 숲을 감각적인 외경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 "숲 속, 거기서 너도 밤나무 열매와 버섯, 맛있는 뿌리를 찾아 킁킁거리며 사방을 돌아다니고 싶어. 내 이 단단한 코로 나뭇잎을 들치면서 말이야"(61). 화이트의 사실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작은 현상들의 표현은 자연과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자연의 생성 모습을 지켜보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서두르는데다 걱정은 하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천천히(slowly)라는 처방을 내리는 살롯을 통해 반세기전의 작품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화이트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월버가 뜰로 달려 나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월버는 급한 마음을 누르고 여물통까지 천천히 기어갑니다. 월버는 감자 한 조각을 찾아내어 꼭꼭 씹어 삼키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Wilbur started to race out to his yard.

"Slowly, slowly!" said Charlotte. "Never hurry and never worry!"

Wilbur checked himself and crept slowly to his trough. He found a bit of potato, chewed it carefully, swallowed it, and walked back to bed. He closed his eyes and was silent for a while. (64~65)

아무 생각 없이 바빠 돌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천천히(slowly) 생각하는 생태적 삶을 살것은 권유한다. 자연의 순수를 따르는 생태적 삶을 지향하면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것만을 쫓아서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바빠 돌아다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현대의 인간은 좋은 것이란 것을 이루기 위한 자아실현으로 자신의 역량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사실은 인간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의 순수와 인간과 자연의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 천천히 생각하기를 권고한다. 인간이 자연의 순수를 떠나서 인간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자연에서 인간성을 구현하기를 원한다. 자연에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수를 느낄 수 있는 태도로 족하다는 것을 윌버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헛간에서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흐린 날이나 갠 날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이렇게 따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서 수다쟁이 거위들과 함께 있는 것, 제비들이 들락거리고 쥐가 가까이 있는 것, 똑같이 생긴 양들과 사랑스런 거미들이 있고 거름 냄새가 풍겨 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영광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Life in the barn was very good--night and day, winter and summer, spring and fall, dull days and bright days. It was the best place to be, thought Wilbur, this warm delicious cellar,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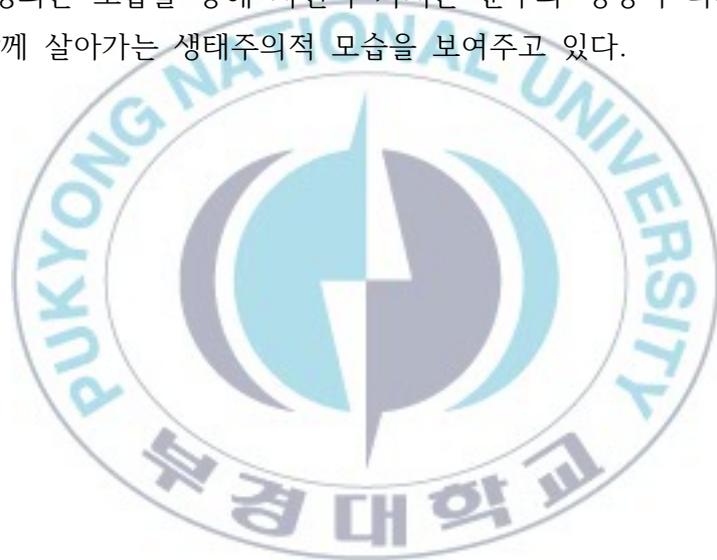
the garrulous geese, the changing seasons, the heat of the sun, the passage of swallows, the nearness of rats, the sameness of sheep, the love of spiders, the smell of manure, and the glory of everything. (183)

여기서 월버는 농장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로 따뜻한 냄새가 풍기는 곳, 수다스런 거위, 변하는 계절, 햇빛, 제비들의 운행, 쥐들의 가까움, 양들의 똑같음, 거미들의 사랑, 거름냄새를 들고 있다. 그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즉 감사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상에서 가까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느껴보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이트의 실제적인 생태주적인 삶이 존재하였기에 작품 속의 생태주의적 요소가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작품의 감동의 울림이 더 강하게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편과 월버의 평등함과 헛간의 동물들의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와 자아실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헛간의 동물들이 서로의 자아실현에 의해 고양되었다. 월버와 다른 동물들 각각이 가지는 차이의 평등성은 존중받고 있다. 작품 초반의 편과 월버의 미성숙함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다루는 것에서부터 작품 후반의 축제라는 장을 통해 편과 동물들의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축제라는 장은 『샬롯의 거미줄』의 각 등장인물들 모두 각자의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샬롯은 비록 죽었지만 한 순수한 생명, 월버를 살렸으며, 그리고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작품 알주머니를 낳았고, 월버는 샬롯이 거미줄에 적혀진 대로 최선을 다했다. 편은 어린 아이에서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하며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었으며, 애러블씨와 애브리는 월버를 통해 감화를 받고 물세례를 통해 자연과 화해를 이루어내었다. 템플턴도 가장 멋진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축제는 각 등장인물의 잠재력의 실현이 극대화되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간

과 자연의 자아실현의 규범이 충돌하지 않고 각 등장인물들의 자아실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똥과 거름이 있는 더러운 헛간, 쓰레기 더미도 자아실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 『살롯의 거미줄』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자아실현이 어느 하나도 쓸모없거나 버릴 것이 없는 상호 구현적 존재의 장이라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 의미가 더욱 깊다. 화이트는 인간과 동물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자연의 계절성의 변화가 반복되면서 순환되어 생성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가지는 순수와 생성이 타자를 억압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생태주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V. 자연과 인간의 소통

심층생태주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자연을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심층 생태주의가 가지는 자연의 생명체에 대한 사유는 편과 울버와 샬롯이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에 의해 생물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샬롯의 거미줄』은 자연과 인간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특히 편이 동물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샬롯이 인간에게 언어를 전달하는 행위를 부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샬롯의 거미줄에 적힌 글자는 자연과 인간의 소통이 인간만의 일방적인 행위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인간은 인간간의 소통을 위해 언어를 창조하였다. 자연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연을 언어가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토퍼 메인즈(Christopher Manes)는 『자연과 침묵』(*Nature and Silence*)에서 자연이 생명력을 상실한 상징적 존재로 전락한 주된 원인을 문자의 등장에서 찾고 있다(Manes 18-20). 언어를 창조한 인간은 언어를 인간만의 고유한 것으로 믿고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자연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견해로 본다면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우월성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때 전제조건으로서 '상징계·상상계·실재계'가 있다.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말 혹은 언어(상징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말해지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즉 무언가 존재(실재)해야 한다. 셋째, 말해지는 내용 혹은 대상에 고정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상상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고정되지 못하여 끊임없이 흐르는 언어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김상환·홍준기 68). 인간은 상징계를 통해 실재

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상징계는 고정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 모순된 의미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모순된 조합으로서 기표가 탄생하고 인간은 그 기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이 모순된 조합의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지 못한 자연과 동물이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모순된 조합의 기표가 실재인 자연과 동물과 소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자연과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어 자체의 존재 여부로 동물을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의 이질성에 보다 주목하여야 한다.

『살롯의 거미줄』에서 동물들은 동물들 간에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인 편은 유일하게 동물들의 말을 듣지만 동물들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 동물들이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편과 동물들이 동시에 대화를 이뤄내지 못하지만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편과 동물들의 소통의 절차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소통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의 철학적 배경은 인간이 자연과 동물을 한 생명의 주체와 인간의 타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을 언어 전달에 대한 무능력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의 모순된 의미의 고정과 언어의 포화상태로 언어 전달에 대한 소외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인간 또한 동물과 동등하게 무능력한 상태로 보아진다.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의사소통 불가능이 동물의 상징계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오히려 상징계 자체가 인간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한계로 상징계 자체의 결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철학적 반성으로 『살롯의 거미줄』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동물에 대한 소통에 관련된 인식과 철학적 반성이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헛간에서 편과 동물들의 동등한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소통이 인간과 자연의 차이의 평등함의 인정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다양성과 공생의 생물 평등주의가 3장에서 논의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과 자연의 생성을 이루게 하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자연과 인간의 소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은 월버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애러블씨에게 월버와 편이 동등하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애러블씨는 편이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약한 아기와 쓸모없는 약한 돼지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딸인 편이 한낱 미숙하게 태어난 돼지 월버와 동등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월버를 죽이지 못한다. 편은 월버가 작게 태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말하지 못하는 월버를 대변한다. 이처럼 언어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타자의 요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는 불가능성이라면 동물의 침묵은 지식의 부재나 주체성의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물이란 타자는 오히려 언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규정하려는 이론들 자체를 '징후'로 만들어 버린다. 동물이 말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Llewelyn 240).

애러블씨는 편이 월버를 돌보면서 귀찮게 느끼고 곧 싫증을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편은 애러블씨의 기대와 어긋나게 헛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하고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편이 행위는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보여준다. 먼저 편은 월버를 살리는 장면에서 생명의 미숙함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는 생물평등주의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태도는 곧 헛간의 동물들과 소통을 이루게 한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편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편이 동물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과 소통하는 것에 관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수동성, 상처받을 가능성, 언어로 재현될 수 없는 불가능성이 문제이다. 동물은 기표를 갖지 못하는 결핍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넘어 존재하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함께 사유하는 것, 동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윤리적인가? 윤리학을 기표의 논리에 종속시켜 동물을 상상계에 한정시키면서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다시 동물을 통해 제시한다. 즉, '원시적 아버지가 단지 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Crooks 104).

이러한 논의에서 『샬롯의 거미줄』에서 편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단순히 동물들을 우화적인 내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철학적 반성을 찾을 수 있다. 편이 동물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는 행위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동물에 대한 논의를 '사랑의 윤리학'에서 펼치고 있는 민승기는 비록 동물이 상상계에 한정되더라도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민승기 237). 편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동물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동물과 평등한 생각을 가진 편은 비록 동물의 이야기를 듣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편이 동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는 한계점은 생태주의의 생물평등주의가 가진 한계의 이유와 어느 부분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인간의 언어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침묵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물의 언어의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다루는 『샬롯의 거미줄』은 문학 작품으로서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고, 인간이 몸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기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은 언어의 본래 얼굴이 주이상스임을 드러내는 증상이다. "증상은 기표이며 동시에 몸이다"(Garcia 27). 증상을 기표로 보고 문학이 언어의 주이상스임을 드러내는 증상으로 보는 것은 상상계에 한정지은 동물이 생물 평등주의의 생태주의적 메시지를 담은 문학 작품 『샬롯의 거미줄』에서 기표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다.

『샬롯의 거미줄』을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웨이크는 화이트의 작품을 우화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녀는 화이트 자신이 『샬롯의 거미줄』을 우화적인 글이 아님을 알리는 편지를 인용하며 화이트의 의견에 지지한다.

『샬롯의 거미줄』을 출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화이트는 어린 독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우화라고 알고 있는 이 책은 우화가 아닙니다. 『샬롯의 거미줄』은 나의 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농장에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편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알레고리적인 어떤 시도도 없으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etters 373). 이러한 조언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서두에 적힌 경고를 상기시킨다. - "사람들은 이 글에서 모티브를 찾고자 한다. 그것은 고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사람들은 이 글에서 도덕적인 것을 찾으려 한다. 그것이 추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사람들은 이 글에서 플롯을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사살되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화이트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거나 독자를 조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그의 말을 받아들여기를 원한다.; 그는 『샬롯의 거미줄』을 단지 편안하게 읽기를 제안한다. 그것은 독자가 그의 책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Wake 110).

웨이크의 이야기처럼 화이트는 『샬롯의 거미줄』에서 독자들이 자연을 느끼기를 원한다. 자연을 느낀다는 것은 자연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화이트가 어떤 상징이나 알레고리적인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자연과 진정한 소통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리다는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자성이라면 상징질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희생되는 기원이 '비인간적인' 것이므로 동물이야말로 타자의 장소에 거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Derrida The animal 16). 화이트는 언어와 상징을 벗어나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장애물 없이 서로 대면하기를 원한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자연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동물과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진 편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샬롯이 월버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은 인간과 평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과 파괴되어지는 자연을 구하기 위해 자연은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자는 집단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재현하는 체계이다(조르주 장 2). 문자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언어라고 간주되었지만 『살롯의 거미줄』에서는 오히려 동물들이 문자를 작성하고 동물 집단의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려 한다. 인간은 문자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지 않고 문자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생태주의에 반하는 입장인 것이다. 마치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광고의 홍수로 글자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고 단어의 덩어리와 의미의 연상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시각경험이 되어버린 것과도 같다(조르주 장 3).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문자의 뜻에 따라 조종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살롯의 거미줄』에서 템플턴이 거미줄에 쓰여질 글자들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문자들이 적힌 조각들을 날랐다. 살롯은 템플턴이 가져온 문자들이 월버를 구하기 위한 뜻으로 사용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찾아 올 것을 요구한다. 그 문자들은 인간에게 걸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는 현대의 범람하는 문자들의 형식과 같다. 수없이 많은 문자들의 홍수에서 인간이 그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언어가 너무 넘쳐서 언어의 쓰레기장이 방불하고 있는 현대에 단순한 정보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가진 문자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을 찾아낸들 인간은 단지 그 문자가 표면적으로 가지는 뜻만 훑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은 언어들의 홍수로 일순간에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소멸하는 언어의 존재와 언어의 변별력의 상실을 말하고 있다. 템플턴은 불평하면서도 여러 차례 쓰레기 더미에 가서 문자들을 찾아 나르고 결국 살롯에 마음에 드는 단어들을 찾아낸다. 그 쓰레기는 거미줄에서 재현되어 살아 있는 언어가 된다. 지나친 언어와 문자의 홍수는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쓰레기 더미에 있을 때 쓰레기 자체이지만 거미줄에서 전달되는 같은 언어의 메시지는 감동을 주게 된다.

살롯이 거미줄에 짜 넣은 “SOME-TERRIFIC-RADIANT-HUMBLE”이라는

단어들은 일버를 구하기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주체적 의미를 나타낸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주체로서 인정받고 인정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버가 대단하고 근사하고 눈부시고 겸손하다는 것은 일버를 그렇게 보아주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대단하고 근사하며 눈부신 존재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겸손한 존재인 것이다. 일버를 향한 이 네 가지 단어들이 자연을 가리키고 있는 동시에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존재를 이 네 단어로 설명하고, 이 네 단어는 반향 되어 독자 자신의 단어가 된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은 편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이 네 단어로 인간집단과 동물 집단 간의 소통으로 확대된다.

현대 사회에서 범람하는 언어와 문자의 홍수 속에 이로운 것만을 찾아내고 읽어내기에 급급한 인간들이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샬롯과 일버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잡지 않아. 건너편에 있는 것이 좀 더 좋을 줄 알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들도 그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좋은 것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언제나 바빠 다니기만 한다니까. 나는 내가 한곳에 정착하여 일하는 거미라는 게 정말 좋아."

"정착 하는게 뭐야?"

일버가 물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시간을 한 곳에 눌러 있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야. 나는 어떤 것을 보기만 해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는데, 내 거미줄은 정말 좋은 것이야.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오는 것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생각할 틈도 있고."

"They don't catch anything. They just keep trotting back and forth across the bridge thinking there is something better on the other side. If they'd hang head-down at the top of the thing and

wait quietly, maybe something good would come along. But no with men it's rush, rush, rush, every minute. I'm glad I'm a sedentary spider."

"What does sedentary mean?" asked Wilbur.

"Means I sit still a good part of the time and don't go wandering all over creation. I know a good thing when I see it, and my web is a good thing. I stay put and wait for what comes. Gives me a chance to think." (60)

살롯은 인간들이 너무 바빠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문자나 언어를 보기 전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살롯이 어떤 것을 보기만 해도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거미줄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넘쳐나는 정보를 가진 지식과 문자를 넘어서 생태주의적 삶이 좋은 것이라는 느껴야 한다. 인간이 생태주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자연이 주는 메시지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애러블 부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편이 걱정스러워요. 동물들이 말이라도 하는 것같이 이야기해 대는 것, 들으셨지요?"

아빠는 가볍게 웃어넘깁니다.

"사실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않소?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편에 대해서는 염려 말아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테니. 아이들이야 이 세상 온갖 것들로부터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언제 도리언 선생님께 여쭙 봐야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편을 무척 귀여워하시니 편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 알려 드려야겠어요. 도저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동물들은 말을 못한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애러블씨는 부인의 걱정을 짓궂게 웃음으로 받아 넘깁니다.

"우리들 귀가 편처럼 예민하지 못해서 안 들리는 건지도 모르지 않소?"

Mrs. Arable spoke in a low voice to her husband.

"I worry about Fern," she said. "Did you hear the way she rambled on about the animals, pretending that they talked?"

Mr. Arable chuckled. "Maybe they do talk," he said. "I've sometimes wondered. At any rate, don't worry about Fern, she's just got a lively imagination. Kids think they hear all sorts of things."

"Just the same, I do worry about her," replied Mrs. Arable. "I think I shall ask Dr. Dorian about her the next time I see him. He loves Fern almost as much as we do, and I want him to know how queerly she is acting about that pig and everything. I don't think it's normal. You know perfectly well animals don't talk." Mr. Arable grinned. "Maybe our ears aren't as sharp as Fern's," he said. (54)

편의 아버지 애러블씨는 인간이 예민하지 못해서 편과 같이 동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자연세계에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를 인간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원인이 있다고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인간과 자연이 소통되기 위해서 인간은 무관심했던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민해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생태주의적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의 소리와 언어를 느끼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애러블 부인과 의사 도리안 선생의 대화는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한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애러블 부인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편의 말로는 동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나요? 도리언 선생님, 동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믿으십니까?"

"동물들이 말하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건 아무런 증거가 되진 못하지요. 어쩌면 어떤 동물이 나에게 예의바르게 말을 걸어 왔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편이 주커만 농장의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나로서는 그 애를 믿고 싶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말을 덜하면 동물들이 더 말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지껄여대는 수다쟁이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제 견해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Mrs. Arable fidgeted. "Fern says the animals talk to each other. Dr. Dorian, do you believe animals talk?"

"I never heard one say anything," he replied. "But that proves nothing. It is quite possible that an animal has spoken civilly to me and that I didn't catch the remark because I wasn't paying attention. Children pay better attention than grownups. If Fern says that the animals in Zuckerman's barn talk, I'm quite ready to believe her. Perhaps if people talked less, animals would talk more.

People are incessant talkers--I can give you my word on that."

(110)

편의 어머니 애러블 부인은 헛간에서 홀로 조용히 있는 딸을 걱정하지만 의사 도리안 선생의 충고를 듣고 안심을 한다. 애러블 부인은 계속되는 걱정을 애러블씨와 의사 도리안 선생에게 털어 놓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일관되게 전달되어 온다. 애러블 부인이 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도록 설정하면서 독자에게로 하여금 이 질문 자체에 관심 갖기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된 같은 답변은 질문에 대한 독자가 의문을 갖는 것 이상으로 의미를 주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소통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의사 도리안 선생은 애러블씨 부인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러면 거미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어린 거미는 누구에게서고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않고 거미줄을 짤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점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110).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숙하게 태어난 인간이 자연을 주체로 인식하고 원래부터 완벽한 매커니즘에 운영되는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것 또한 기적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의사 도리안 선생은 생명 현상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물의 습성과 생태에 대해 기적으로 비유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축제에서 샬롯이 삼촌이라는 큰 돼지와 나눈 대화는 이러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진지한 생각들과는 대비된다. 따라서 삼촌이라는 돼지의 성격은 샬롯이 싫어하는 인물의 전형이 된다. 삼촌이라는 큰 돼지를 묘사하는 샬롯에 의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물론이지. 난 봄 돼지야. 넌 그럼 내가 무엇인지 줄 알았니? 봄 병아린 줄 알았어? 하, 하, 하. 그것도 괜찮은데, 안 그래, 누이?"

"은근히 웃기시는군요. 하지만 난 더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걸요.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고요. 하여간 만나서 반가워요, 아저씨. 이젠 가 보겠어요."

샬롯은 천천히 올라와서 일버의 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자기도 봄 돼지라고 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매력 없는 마음보를 가졌다는 거야. 너무 친한 척하고, 너무 떠벌리고, 싸구려 농담이나 주워섬기는 거야. 게다가 어느 구석을 봐도 너처럼 깨끗하거나 기분 좋은 데라고는 없어. 잠깐 만나 보고서도 정이 떨어져 버렸다니까..... "

"Sure I'm a spring pig," replied Uncle. "What did you think I was, a spring chicken? Haw, haw--that's a good one, eh, Sister?"

"Mildly funny," said Charlotte. "I've heard funnier ones, though. Glad to have met you, and now I must be going."

She ascended slowly and returned to Wilbur's pen.

"He claims he's a spring pig," reported Charlotte," and perhaps he is. One thing is certain, he has a most unattractive personality. He is too familiar, too noisy, and he cracks weak jokes. Also, he's not anywhere near as clean as you are, nor as pleasant. I took quite a dislike to him in our brief interview. (135)

살롯은 이 삼촌이라는 돼지가 가장 매력적이지 못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살롯을 처음 대하면서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대하고 시끄럽고 농담을 지껄인다고 말한다. 즉 진지하지 못한 삼촌이라는 돼지는 외형적으로 덩치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살롯은 월버와 삼촌이라는 돼지를 곧바로 비교하며 월버가 삼촌이라는 돼지보다 깨끗하고 유쾌하다고 생각한다. 삼촌이라는 돼지의 말과 태도는 마치 쓰레기 더미에 혼란스럽게 널어진 인간들의 말과 욕망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크기만을 따지는 세속적인 인간의 잣대를 상징한다. 살롯은 크기에 따라 쓸모가 결정되는 인간들의 잣대에 실망하지만 월버의 내면을 칭찬하며 희망을 갖기를 격려한다.

작품속의 축제에서 월버에게 상을 주는 심사위원은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진다. 그들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 집단을 상징한다. 그들은 거미가 언어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언어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만을 한정짓고자 한다. 거미줄에 나타나는 문자는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것이고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에 벗어난 현상이다. 인간의 견해에서 자연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이기에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기적이라고 해명할 수밖에 없다. 동물의 능력을 인간보다 하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거미줄에 나타난 글자는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에 거미가 대변하는 자연 생태계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부인한다.

살롯에 대한 부정은 역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다. 이 글에서 큰

목소리의 인간 집단은 거미가 인간의 언어를 인식하고 글을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다. 자연은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미가 글을 썼다고 인정하게 되면 인간과 대등한 자연적 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미를 부인하고 또 다른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구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초자연적인 존재를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샬롯의 거미줄을 부인하는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샬롯은 짧은 답으로 오히려 되묻는다.

"이 동물의 전체적인 눈부신 자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거미줄에 '눈부신'이라고 분명히 나타났던 그 날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신비로운 글씨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절대로 거미가 한 일은 아닙니다. 거미는 거미줄은 잘 짜지만 글씨를 쓸 줄은 모릅니다." 멀리서 혼자 듣고 있던 샬롯이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Note the general radiance of this animal! Then remember the day when the word 'radiant' appeared clearly on the web. Whence came this mysterious writing? Not from the spider, we can rest assured of that. Spiders are very clever at weaving their webs, but needless to say spiders cannot write."

"Oh, they can't, can't they?" murmured Charlotte to herself. (158)

그 질문에 답은 독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단 한마디로 샬롯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는 성실히 작품을 처음부터 읽어 온 독자에게 달려 있다. 작품 말미 샬롯의 죽음을 앞두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편과 같이 자연의 언어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애러블씨와 의사 도리안 선생처럼 가능성만이라도 이해하지만 대다수의 큰 소리를 내는 인간은 자연의 언어를 외면하고 있다. 자연이 언어에 이질적인 존재이며, 그것은 언어의 열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체계가 길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롯의 거미줄』에서 동물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화이트는 자연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 동물의 언어의 가능성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의 작품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아동 문학 작품 『트럼펫을 부는 백조』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소통은 관심 있게 다루지고 있다. 멋진 수영실력과 나는 능력을 가졌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인공 루이(Louise)는 캐나다의 한 호수에서 살고 있는 잘 생긴 트럼펫 백조이다. 그런 루이에게 아버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백조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소년 샘(Sam)은 트럼펫 백조인 루이의 부모를 만나서 서로 소통한다. 그리고 루이는 사랑하는 백조 세레나(Serena)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칠판에 쓰면서 동물원의 조류 보호 당국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들은 루이가 적은 글을 읽고 그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데 마치 『샬롯의 거미줄』에서 샬롯이 인간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거미줄로 인간의 언어를 짜서 인간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형식과도 닮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만이 언어를 말하고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 때문에 타자성을 인간 타자에 한정하고 있다. 인간은 언어를 말할 수 없는 동물을 상상계에 한정시키고 타자에 대한 응답(response)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은 자동적인 반응(reaction)만을 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진실을 통해 거짓을 말하는 이중의 속임수는 인간의 욕망이나 응답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Derrida And say 126~132).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샬롯의 거미줄에 완벽하고도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다. 인간이 샬롯의 거미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수용하면서도 그 근원을 파

악하지 못하는 모순은 자연과 소통을 가지는 인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살롯은 그 한계를 넘어 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이루게 하고 거미줄에 적힌 글의 감동을 돼지 월버와 일치시킨다. 『살롯의 거미줄』의 마지막에 ‘살롯을 누구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충실한 친구이면서 또 훌륭한 작가로 타고난 이는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깐요. 살롯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184). 인간만이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동물인 거미도 훌륭한 작가가 된다는 생각은 단순히 재미있는 상상을 뛰어 넘어 자연 속에서 훌륭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명력과 활기를 느낄 줄 알고 아이들에게 자연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생태주의적 의도이다.

비록 버려지고 남은 음식이지만 월버의 맛있는 식사에 대해 반복해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맛있는 식사에 대해 구체적인 음식의 종류가 등장하고 쓰레기지만 소중한 식사로 각각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언급하고 있다. 쓰레기 음식도 멋진 음식이라는 것과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며 쓰레기도 자연의 동물들에게 소비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과 인간의 존재가 제각기 부분과 부분, 그리고 부분과 전체 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공명수 89). 실체로서 자연은 개별 생명체의 차이를 배분하고 인도하는 총체가 아니라, 상이한 생명체를 존재하도록 하는 차이 자체로서 모든 존재를 포괄하고 있는 내재성의 장으로 이해된다(Hayden 193). 『살롯의 거미줄』에서 개별 생명체들은 차이를 갖고 쓰레기조차도 생명체의 존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화이트는 월버를 위한 맛있는 식사를 “탈지분유에 밀기울, 먹다 남은 팬케이크, 도넛 반쪽, 애호박껍질, 마른 식빵 두 쪽, 생강 과자 부스러기, 생선 꼬리, 굴껍질 한 개, 국수장국에서 나온 국수 몇 가락, 코코아 찌꺼기, 옛날 식 젤리, 산딸기 잼 한 손갈과 거기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종이 한 장 까지 섞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75).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가 동물에게 맛있는 식사가 되어 진다는 것을 통해 음식쓰레기가 생태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자연에 얼마나 효용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인간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들마저도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쓰레기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사과나무 과수원 아래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있는 쓰레기장에 주커먼씨는 더 이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온갖 폐물 잡동사니들을 모두 던져 넣습니다. 바로 이 곳, 야생의 나무딸기 숲과 오리나무에 가려진 조그마한 구덩이에 쓸모없는 병, 빈 깡통, 걸레 조각, 금속 조각, 깨진 유리 조각, 망가진 돌쩌귀, 못쓰게 된 용수철, 다많은 건전지, 철 지난 잡지, 내버린 행주, 닳아 해진 작업복, 녹슨 못, 새는 물통, 병마개, 망가진 아이스크림 제조기용 크랭크 등등의 온갖 쓸모없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Below the apple orchard, at the end of a path, was the dump where Mr. Zuckerman threw all sorts of trash and stuff that nobody wanted any more. here, in a small clearing hidden by young alders and wild raspberry bushes, was an astonishing pile of old bottles and empty tin cans and dirty rags and bits of metal and broken bottles and broken hinges and broken springs and dead batteries and last month's magazines and old discarded dishmops and tattered overalls and rusty spikes and leaky pails and forgotten. (97)

쓰레기는 소용되어진 이후 버려진 물건이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쓰레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소외된 것을 다시 욕망한다는 의미의 문학적 심상이다. 소외된 주체가 언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욕망으로서의 타자와 대면하게 되는 것을 내포한다(브루스핑크 105). 소외는 본질적으로 "강제된" 선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이 선택은 주체에게서 존재를 배제하며 대신에 상징적 질서를 설치하고 주체를 한낱 그곳의 자리-보유자로서 실존으로 격하시킨다. 다른 한편 분리는 존재를 낳지만 그 존재는 현저하게도 덧없고 난포착적인 부류

의 것이다. 분리는 주체와 타자 모두가 배제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함축한다 (브루스핑크 110). 템플턴은 쓰레기 더미에서 비록 쓸모없는 것이지만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쓰레기에 적힌 글자에 대한 문학적 심상을 소외된 주체가 분리되고 욕망되어지는 과정과 연관시킬 수 있다. 버려진 쓰레기라는 존재를 타자 템플턴이 지속적으로 욕망하고 있으며, 쓰레기에서 빌려온 글자가 샬롯의 글자로 탄생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한 글자 조각은 소외된 주체를 상징하지만 일버를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쓸모없고 죽은 것들이 생명을 찾는데 쓰이는 것으로 욕망의 대상으로서 타자, 인간과 대면하게 된다.

김대영은 그의 논문 「생태학적 통합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에서 샬롯의 거미줄이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샬롯은 타자로써 인간들을 인지하고 그들의 인내심 없이 선불리 행동하는 심리적 속성(Gullible:속이기 쉬운)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략하는 계획을 진전시킨다. 샬롯은 벌레 스스로가 거미집으로 다가오듯, 인간의 욕망들을 이용, 심미적 방법인 시각적 표현으로 그들 스스로가 믿고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의 목표로 다가오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소설의 인간 욕망의 종착은 박람회이다. 박람회는 사람들의 욕망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박람회로 모인다. (21)

샬롯은 쓰레기의 글자가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인간 자신의 욕망에 나약한 존재인 것도 파악하고 있다. 거미줄의 단어는 인간이 언어에 속게 되고 또한 인간이 자신의 언어에 소외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은 순환하는 법칙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딱히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의 일들은 우연히 찾아온다. 그러나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지는 우연성이 결국 필연성이 되는 것이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일어

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후에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치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있듯이 되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도플갱어 같은 효과로서 생이 환경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순환하고 반복되어지는 현상과도 같다. 계절이 반복되고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어 지는 것은 생과 자연 세계가 반복되면서 순환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은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또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작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 성장에 관련되어 있다. 작품 초반에 월버가 애러블씨로부터 죽을 위기를 맞고 후에 크리스마스에 햄으로 올려 질 것이라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 죽음의 운명은 반복해서 나타났지만 월버는 다시 봄을 맞이한다. 품평회에 가기 전 애러블씨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에 월버는 쓰러지고 시상식에서 자신의 생명을 찬양하는 관중의 환호에 또 한 번 쓰러진다. 그런 월버를 깨우기 위해서 한 번은 월버가 물세례를 맞고, 한번은 애러블씨와 애브리가 물세례를 맞는다. 월버의 열등함은 작품 초반에 약하게 태어나 죽을 운명에서 품평회에서 월버보다 훨씬 큰 삼촌이라는 돼지와 대조되어 나타난다. 어린 월버는 편과 떨어져 헛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를 찾다 밤을 맞이해 샬롯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샬롯이 죽고 나서 샬롯의 알을 지키던 월버는 샬롯의 새끼거미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난 후 허탈하고 외로워 잠들게 된다. 월버가 잠이 깨자 남아있는 3마리의 거미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편이 그네를 타고 높이 날아간 것과 회전열차를 타고 높이 올라간 일 또한 시간을 띄워서 반복하며 발생한다. 우연성이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필연성을 띠게 한다. 작품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필연성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봄은 언제나 오지만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고 봄이 늘 찾아 왔던 그 시간 즈음에 우연히 찾아 올 것이다. 다만 다시 봄이 올 것은 필연적이다. 이처럼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우연히 오는 필연성의 자연의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샬롯의 거미줄』에서 우연히 반복되어지는 형식은 우연을 동반한 필연적인 생태의 영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샬롯은 월버에게 샬롯의 사촌 거미가 열기구 조종사처럼 하늘을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샬롯의 알주머니에서 태어난 새끼거미들도 열기구조종사처럼 하늘을 날아 사라진다. 이것은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연의 질서인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해마다 샬롯의 새끼 거미들이 열기구 조종사처럼 하늘로 날아간 일들도 월버에게는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월버로서는 더없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도 가고 해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월버에게 친구들이 없는 때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편이 규칙적으로 헛간에 오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편도 점점 자라고 있으므로 어린애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고, 돼지우리에 가서 젖 짜는 발판에 앉아 있는 일은 유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샬롯의 아이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해마다 출입문 위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새 봄이 되면 꼬마 거미들이 알에서 깨어 나와 옛날 거미들을 대신해 주곤 하였답니다. 알에서 깨어난 거미들은 대부분 풍선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지만. 언제나 두세 마리는 남아서 출입문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곤 했던 것입니다.

It was a happy day for Wilbur. And many more happy, tranquil days followed.

As time went on, and the months and years came and went, he was never without friends. Fern did not come regularly to the barn any more. She was growing up, and was careful to avoid childish things, like sitting on a milk stool near a pigpen. But Charlotte's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great grandchildren, year after year, lived in the doorway. Each spring there were new little spiders hatching out to take the place of the old. Most of them sailed away, on their balloons. But always two or three

stayed and set up housekeeping in the doorway. (183)

반복되는 세계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끝이 아니고 또다시 겪게 될 일들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 생태는 반복되어지는 세계라는 것을 알리고,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자 하는 『살롯의 거미줄』이 가지는 또 하나의 생태주의적 메시지이다.

살롯이 거미줄에 짜 넣은 단어들은 일버를 구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이 단어들은 인간이 자연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애러블씨와 의사 도리안 선생, 살롯은 자연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정에 대해 수차례의 의문과 답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이 의문에 대해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살롯의 거미줄』은 답으로 제시한다. 인간이 상징계 너머 자연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자로 인정하여야 소통이 가능함을 화이트는 피력하고 있다. 또한 편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기 위한 절차로 자연을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조용히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살롯의 거미줄』은 생태계의 공생적 관계 속에서 생태적 자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주체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을 이루고 있음을 편과 등장인물들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한 생명의 주체(subject-of-a-life)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체의 어떠한 단일 종일지라도 다른 어떤 종들에 비해 생존 및 생활에서 더 많은 특정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살롯의 거미줄』은 생태주의의 다양성과 공생이라는 이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나아가 작가가 표방하는 다양한 공생관계는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매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동물이 인간적인 범주를 초월하는 존재이며 작품 속에서 묘사된 등장인물의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이트의 작품은 생명 현상에 가치를 두고 사랑과 종족간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작업이라 하겠다. 나아가 인간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동등해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살롯의 거미줄』은 동물들과 인간들의 화해를 결합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축제 같은 이야기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살롯의 거미줄』에 담긴 생태주의적 요소를 찾아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2장에서는 다양한 동물들과 개별적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공생하는 모습을 텍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편은 아버지 애러블씨가 월버를 도살하는 것을 막는다. 그녀는 월버가 작게 태어나서 쓸모없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외친다. 이것은 자신과 월버를 동등하게 여기는 생물 평등주의를 나타낸다. 편은 자신이 구해준 월버를 보기 위해 헛간을 찾아가고 헛간의 동물들은 그녀를 동물과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 편의 행위와 동물들이 편을 인정하는 행위는 자연 속의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생물 평등주의로 볼 수 있다. 샬롯이 쓰는 예의바른 언어도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월버는 샬롯이 거미줄을 엮는 능력을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어 한다. 샬롯은 월버가 샬롯과 다른 점을 말해주고 그 차이는 열등함을 나타내지 않고 평등함 것임을 이해시킨다. 이와 같이 『샬롯의 거미줄』에서 나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차이를 가지면서 평등하게 존중받고 각자의 생태적 행위가 공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3장에서는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에 의한 평등함을 전제로 인간과 자연의 자아실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축제에서 헨리를 만나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편지 행위, 축제에서 쓰러진 월버의 순수성과 순진성, 물세례를 받는 애러블씨와 애브리, 축제에서 마음껏 음식을 즐기는 템플턴, 알을 낳고 죽는 샬롯의 행위들은 생태주의적 자아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세례는 자연과 화해하는 정화의식으로 애러블씨와 애브리는 자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가운데 자연은 변함없이 계절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동물들 간의 차이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과 변화를 반복하는 자연의 생성은 이 작품에 생태주의 담론을 담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짐을 밝혔다.

4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에 관해 논의하였다. 샬롯이 거미줄에 짜 넣은 단어들은 월버를 구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각 단어들은 인간과 자연이 주체로서 가지는 의미와 상호 주체로서 인정받고 인정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비유하고 있다. 생태주의는 인간의 자연으로의 귀환이다. 동물을 상상계로 귀속시키면서도 동물을 인간의 이성의 하위에 두지 않는다.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샬롯의 거미줄』은 말하고 있다. 샬롯은 인간의 언어를 거미줄로 엮어 인간에게 자연의 의사를 전달하려 한다. 애러블씨와 의사 도리안 선생, 샬롯은 자연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정에 대해 수차례의 의문과 답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화이트는 편과 샬롯의 행위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소통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샬롯의 거미줄』에는 우화적인 표현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소통에 관한 생태주의적 철학이 담겨 있음을 밝혔다.

『샬롯의 거미줄』은 다양함과 공생의 생물평등주의가 존중되면서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화이트는 평등함과 생태주의적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간과 자연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화이트는 거미의 정주형의(sedentary) 삶을 본받아 생태주의적 삶에 충실할 것을 권유한다.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에서 자연은 인간의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공동의 타자이다. 자연이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이 하나의 타자로서 존재하기에 생태주의가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생태주의 철학을 통해 자연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이해와 반성의 자료로서 아동들에게 간접적으로 생태주의를 경험하게 한다.

『샬롯의 거미줄』이 생태주의 문학작품으로서 동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것을 지향하고 인간, 자연, 동물, 지구 어느 하나 상급 계층이 아닌 동등한 자격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식들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논문외에 『트럼펫을 부는 백조』와 『스튜어트 리틀』이 가진 생태주의적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영어권 작품에서 다양한 생태주의적 문학경험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을 제의하는 바이다. 생태주의의 특징을 담은 문학작품을 창조해내고 그것을 아동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문학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공명수. 『생태학적 상상력과 사회적 선택』. 서울: 동인, 2010.
- 김경. 『우정의 거미줄』.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 김대영. 「Mind Expansion : From Anthropocentric Ecocentric -an Example of Mind Expansion in E.B.White's Charlotte's Web」 한국 영어영문학회 국제 학술대회, 2012년 12월 12일. (미발행발표논문)
- _____. 「생태학적 통합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이 비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에서의 공생 관계의 예시」. 강원대학교, 2012.
- 김상환·홍준기. 『라깡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 민승기. 「사랑의 윤리학」. 『라깡, 사유의 모험』. 홍준기 엮음. 서울: 도서출판 마티. 2010.
- 브루스 핑크. 『에크리 읽기: 문자 그대로의 라깡』. 김서영 역. 서울: 도서출판 b, 2007.
- 세스 레러. 『어린이 문학의 역사』. 강경이 역. 서울: 이론과 실천, 2011.
- 이영림. 「아동문학과 어린이의 성장:E.B.White의 *Charlotte's Web*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4.
- 이정희. 「생태주의적 비전-E.B.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 숙명여자 대학교, 2010. 한국 영어영문학회 국제 학술대회, 2012년 12월 12일.(미발행 발표논문)
- 조르주 장. 『문자의 역사』. 서울: 시공사, 1998.
-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서울: 한울, 2010.
- Agosta, Lucien L. *E. B. White: The Children's books*.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95.
- Bill Deval,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is Mattered*. Layton: Gibbsmith, 2001.
- Christopher Manes. "Nature and Silence." *The Ecocriticism Reader*

- In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U of Georgia p, 1996:15-29
- Deleuze, G. *Spinoza : Practical Philosophy*. Trans. Robert Hurly. San Francisco: Citilights publishers, 2001.
- Deleuze, G. and F. Guattari. *Mille Plateaux, Minuit* Paris: 1980
Trans. B. Massum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 Garcia, German.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 *lacanian ink* 1.2. 1990: 54-7.
- Hayden, P. Gilles. "Deleuze and naturalism: a convergence with ecological theory and politics." *Environmental Ethics*. vol.9(2). 1997: 185-204.
- Jacques Derrida. "And Say The Animal Responded?" Trans. David Wills. *Zoontologies*. Ed. Cary Wolf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3.
- _____.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More to Follow)" Trans. David Wills. *Critical Inquiry* 28:2, 2002: 369-418.
- John Llewelyn. "Am I Obsessed by Bobby?" Re-reading Levinas, Ed. Robert Bernasconi and Simon Critchley, Bloomington, Indiana up, 1991: 234-45
- Kalpana Seshadri Crooks. "Being Human: Bestiality, Anthropophagy, and Law".in *Umbr(a): Ignorance of the Law*. No1. 2003: 97-114.
- Lynn Overholt Wake. "E.B.White's Pean to Life :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of Charlotte's Web" *Wild Things Children's Culture and Ecocriticism*. Ed. Sidney I. Dobrin and Kenneth B. Kidd. Detroit, Wayne State up, 2004: 101-14.
- Naess. A.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p, 1989.
- _____. "Self-realization in mixed communities of humans, bears,

- sheep, and wolves." *Inquiry*. 22, 1979: 231-41.
- _____.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 1973: 95-100
- Nietzsche. F. *The Gay Science* Trans. Ed. W kaufman. New York: Vintage Books, 1974.
- Plumwood. V. "Ecological ethics from rights to recognition: multiple spheres of justice for humans, animals and nature," Ed. N. Low. *Global Ethics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1999: 188-212.
- _____.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1993.
-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California, u of California p Berkley, 2004.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New York: Avon Books, 1990.
- White. E. B. *Letters of E. B. White*. Ed. D. L. Guth. New York: Harper & Row, 1976.
- _____. *The Trumpet of the Swan*. New York: Harper, 1970.
- _____. *Charlotte's Web*. New York: Harper Collins, 1952.
- _____. *Stuart Little*. New York: Harper, 1945.